



2020年12月30日星期四

2020
Vol. 39 여성이 새로
여는 세상



2020 스페셜 이슈

코로나19 사태와 돌봄 재난
2020 젠더 이슈

함께하고

충청남도 1인가구 실태
빅데이터로 본 충남의 인권
돌봄 위기 속 '알쓸' 노무 상식
2020 연구과제 목록과 개요

공유하며

충남여성풀뿌리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찾아가는 충남여성풀뿌리자치학교
시·군 양성평등 담당자 젠더아카데미
경찰청 양성평등 담당자 젠더아카데미

이야기로

개원 21주년 기념 세미나 스토리
흙커밍데이 스케치
연구원 추천 도서&영화

소통하다

SNS 홍보 기자단의 취재 현장
충남여성 뉴스룸
성평등 충남을 만드는 사람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및 교육기관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지역 곳곳에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면서
여성 인권이 다시 뒷걸음질 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지역 여성들과 연대해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충남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2020
Vol. 39 여성이 새로
여는 세상



2020 스페셜 이슈

코로나19 사태와 돌봄 재난
2020 젠더 이슈

함께하고

충청남도 1인가구 실태
빅데이터로 본 충남의 인권
돌봄 위기 속 '알쓸' 노무 상식
2020 연구과제 목록과 개요

공유하며

충남여성풀뿌리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찾아가는 충남여성풀뿌리자치학교
시·군 양성평등 담당자 젠더아카데미
경찰청 양성평등 담당자 젠더아카데미

이야기로

개원 21주년 기념 세미나 스토리
흙커밍데이 스케치
연구원 추천, 도서&영화

소통하다

SNS 홍보 기자단의 취재 현장
충남여성 뉴스룸
성평등 충남을 만드는 사람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및 교육기관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CONTENTS

Vol. 39



인트로
발간사
발간축사



특집
2020 스페셜 이슈



함께하고
연구사업 포커스
연구사업 실적



공유하며
교육사업현장



이야기로
세미나 스토리
흠커밍데이 스케치
연구원 추천 도서



소통하다
SNS 징검다리
충남여성 뉴스룸
with CWPDI

발간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안녕하세요. 제9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입니다. 지난 9월 14일 취임한 이후 숨 가쁘게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개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성들은 의료, 복지, 교육의 영역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가중된 돌봄 부담과 함께 재난을 마주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여성으로서 사회와 가정에서 겪는 불평등 요소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와 청소년·아동 성범죄자 관리문제, 비대면화된 일상에서 나타나는 미세한 ‘먼지차별’ 등 다양한 젠더이슈가 등장한 한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포스트코로나(Post-Corona) 시대를 맞아 모두가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 성평등한 환경을 함께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논의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개발원에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신 충남도민과 충남여성들 덕분에 한 해의 성과를 나누는 <충남인 여성in>을 발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젠더이슈들의 현황과 함께 긍정적 변화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충남의 1인 가구 실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 문제,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위기 개입, 이주배경 아동 지원 방안, 여성농업인의 일·생활 균형 문제,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인권문제 등의 연구결과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대면교육과 외부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종 공모사업과 네트워킹에 참여하고 성장한 지역 여성들의 모습, 우리 개발원과 올 한해 연대해주신 충남 여성들이 함께 이룬 성과도 담았습니다.

2021년에는 더욱 겸허한 자세로 도민과 충남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여성정책개발원이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평등’ 가치 실현을 통해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변화의 길에 저희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중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새해에도 충남도민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간축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이사장
김용찬

격동의 한해를 마무리하며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이뤄온 성과들을 도민과 함께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충남인 여성in>의 발간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적 상황 속에서 도민 모두가 힘들었던 2020년에도, 충남 여성의 힘찬 발걸음을 기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지난 1999년 개원 이래, 우리 도의 여성·가족 분야의 싱크탱크로서 양성평등한 도정 구현에 큰 기여를 해 왔으며, 지역 여성리더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여성들이 단순한 정책수혜의 대상이 아닌 도정에 함께 참여하는 주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19와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의를 다해 주신 조양순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각 지역에서 활동해 주신 여성리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도 성평등을 '더 행복한 충남',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자 철학으로 여기며, 양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남 여성가족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가칭)충남여성가족플라자를 건립하여 여성 권익 증진과 풀뿌리여성 조직 육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성평등지수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의 여성비율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유리천장을 없애고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도 든든한 성평등 파트너로서 함께 해주길 믿습니다.

2020년 힘들었던 한 해, 여러분의 다양한 활동이 충남도민의 삶에 위로를, 충남여성의 삶에 성평등을 안겨 주었음을 확신합니다. 저는 다가오는 2021년에도 충남여성정책개발원과 함께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오인환

충청남도 <충남인 여성in>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오인환입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충남인 여성in> 소식지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충청남도 여성정책의 산실인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지역여건에 가장 필요한 여성정책을 연구하고, 여성·가족, 복지 및 다문화 등에 대한 정책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성인지 확대와 저출산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가 야기한 여성·가족·성평등 현안 진단과 지역의 수요와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현장 밀착형 연구를 강화하고 여성의 권익과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번 발간되는 <충남인 여성in> 소식지에는 지역의 각 분야에서 제 몫을 묵묵히 감당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충남 여성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도민과 함께 공유하며 소통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자료와 정책 연구 결과는 도민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여성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식지 발간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에는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도민과 함께 소망과 연대의 따뜻함을 느끼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여성정책개발원과 함께 충남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 양성평등 실현 등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돌봄재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전 인류에게 많은 난제를 던져주고 있다. 보건의료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빈부격차, 계층, 성별, 민족과 인종 등에서 기존의 불평등한 구조를 오히려 더 중층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다. 유엔 여성기구 부총재인 아니타 바티아는 “25년 동안 우리가 해온 모든 일이 2020년 한 해 만에 전부 사라졌다”고 탄식하기도 했다. 여성들이 긴 시간 어렵게 찾아온 여성인권이 뒷걸음질하고 있는 데 따른 염려가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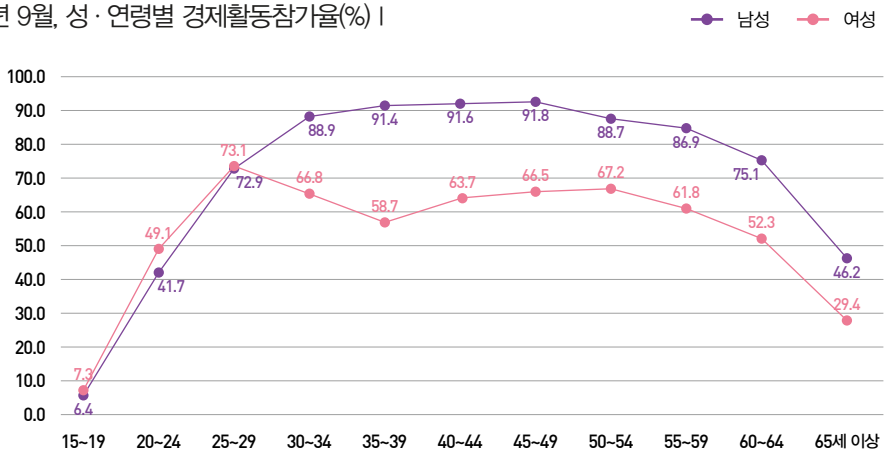
팬데믹 시대, 뒷걸음질하고 있는 여성인권

팬데믹의 초기였던 2020년 4월, 유엔 여성기구(UN Women)는 ‘코로나19가 여성에게 끼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며 실업과 빈곤, 건강, 젠더폭력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평등한 현상을 우려한 바 있다. 그리고 7개월 후인 지난 11월, 유엔 여성기구는 팬데믹 시대에 여성에게 주어진 돌봄 노동으로 1950년대와 같은 성역할 고정관념이 되살아날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바이러스는 누구나 접촉하면 감염될 수 있다는 면에서 얼핏 평등한 것으로 보이지만, 바이러스가 추동하는 사회적 재난의 양상은 계급과 인종, 국적, 젠더 등이 맞물리는 조건에 따라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9월 여성고용동향’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전반적인 고용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남성보다 여성에 대한 타격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15세 이상 여성고용률은 50.9%로 전년 같은 달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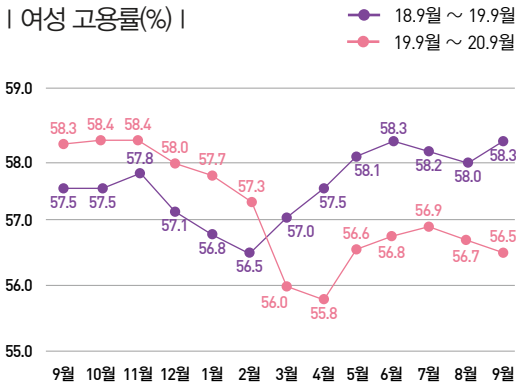
1.5%p 하락했고, 남성 고용률은 70.0%로 같은 기간 0.9%p 낮아졌다. 15~64세의 여성고용률(OECD 기준)은 56.5%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8%p 하락했고, 남성의 경우 1.0%p 하락했다. 15세 이상 여성 취업자는 9월 기준 전년보다 28만 3000명 감소했고 남성 취업자는 10만 9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시휴직자는 여성의 경우 9월 기준 전년보다 26만 7000명 증가했는데, 남성이 경우에는 15만 명이 증가했을 뿐이다. 5세 이상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9월 기준 전년 대비 34만 2000명 늘었다. 반면 남성의 경우는 19만 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여성 비경제활동인구(1078만여 명) 중 절반이 넘는 583만 7000명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 ‘가사’를 꼽았다. 코로나19 이후 집안일 부담이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을 포기했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질수록, 가사와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 2020년 9월, 성·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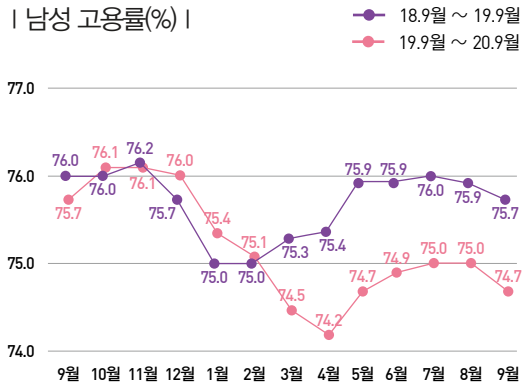


점도 이들을 경제활동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다. 유엔 여성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 이전에도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3배 이상의 가사노동을 떠맡아왔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와 돌봄 노동의 수요가 늘면서 여성의 가사노동은 이전의 2배 이상 증가했다. 바로 이 점이 유엔 여성기구가 여성인권의 후퇴를 우려한 가장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다.

| 여성 고용률(%) |



| 남성 고용률(%) |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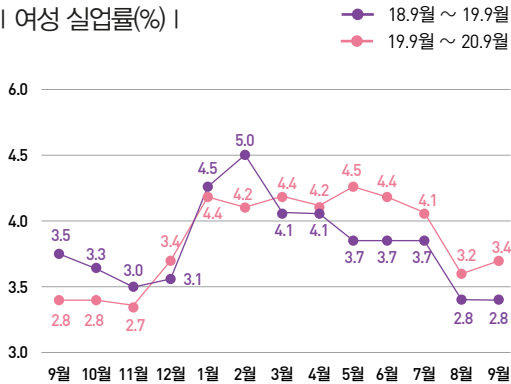
여성에게 지워진 '독박 돌봄'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학교, 학원 등이 문을 닫으며 돌봄 공백이 발생하자 '가족돌봄휴가'의 사용이 늘었다. 하지만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9월까지 6개월간 가족돌봄휴가 사용자의 약 62%가 여성으로, 남성의 1.6배가량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증가하는 가정 내 돌봄 부담을 여성이 더 많이 지게 되는 '독박 돌봄'이 통계로도 드러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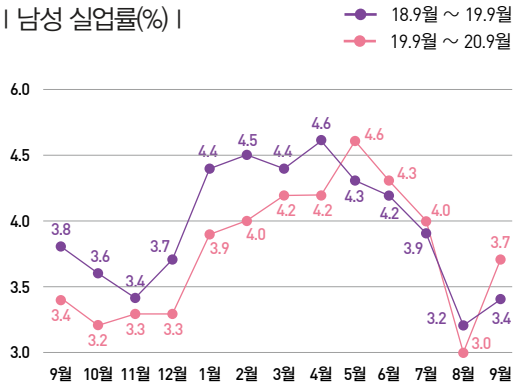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지난 5월~6월 두 달 간, 임금·돌봄 노동을 경험한 여성 76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족 내 돌봄 부담은 여성에게 고스란히 지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족 내 돌봄 노동 분담 비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여성 노동자 본인이 분담한다는 응답은 73.5%, 배우자가 분담한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여성 노동자에게 돌봄 부담이 더 추가된 상황에서, 가중된 돌봄 노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응답자의 36.9%는 '돌봄 대상을 남겨두고 출근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돌봄 위기가 지속될 때에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일을 그만둘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진행한 '충남형 방과 후 초등 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에서도 유사한 상황을 발견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사교육기관 의존비율은 낮아졌다. 그러나 홀로 방치되는 아동 비

율은 25.4%로 방학 기간(21.3%) 보다 4.1% 높았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으로 휴직 및 사직에 대한 생각이나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한 여성의 절반에 가까운 49.9%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다른 사람과 나눌 수도 없이 고스란히 여성이 짊어져야 하는 이른바 ‘독박 돌봄’의 실태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답변이다.

여성 실업률(%)



남성 실업률(%)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모든 것이 멈춰도 멈출 수 없는 돌봄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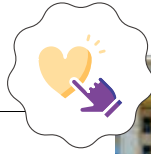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는 비대면이라는 형태로 사회 전체를 재편하고 있지만 일부 돌봄 노동 여성들은 직장에서조차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WHO에 따르면 세계 보건사회분야 종사자의 70%는 여성이다. 현재 음압병동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실제 돌보고 있는 이들도 대부분이 여성인 간호사들이다. 31만 5000여 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코로나 19의 위험 속에서도 사람들과 접촉하며 일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감염 위험이 매우 높지만 방역도구조차 지원받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중단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고 소득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돌봄 노동자의 일을 필수 노동으로 간주하고 필수 노동에 대한 사회적 처우에 대한 논의가 현장은 물론 학계에서도 활발히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부족하다.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1주년 세미나에서 앞으로 어떻게 안전한 돌봄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어떤 처우를 할 것인지 고민과 성찰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결국 코로나19 이후의 돌봄은 사회를 운영하는 핵심 영역이자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노동이 되었습니다. 여성들에게 특별히 강요해 왔던 노동 영역에서의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2020 젠더 이슈는?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 유포사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노동의 집중 등 사상 초유의 사건과 재난으로 여성인권이 후퇴한 듯한 한 해를 보냈다. 하지만 위기는 또 하나의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 21대 젠더국회의 면모를 보여준 활동과 디지털 성폭력 양형 기준 마련 등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결과, 성평등 관련 정책에서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성과를 낸 해이기도 하다. 2020년 기억할 만한 젠더 이슈를 짚어봤다.

올해의 긍정 이슈



21대 국회는 젠더국회가 왜 필요한지를 알려줬어

21대 국회에 57명이라는 역대 최다 여성 의원이 입성하면서 지난 10월 열렸던 국정감사에 대해 ‘젠더 국감’이었다는 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은 성차별 실태조사 제안, 생리용품 안전성 문제,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의 부적합성,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실태 등 다양한 주제의 질문을 던지며 활약하기도 했다.

류호정 의원 [정의당]

원피스를 입고 국회에 등원해 보수적인 의회 문화에 신선한 충격을 줬던 류 의원은 삼성전자 간부가 언론사 기자 출입증으로 의원회관을 드나든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해당 의원은 퇴사하고 국회사무처도 사실 관계 조사 중이다.

권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현황을 분석해, 전공의 선발에서의 성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성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한국여자의사회에서 확보한 ‘2019년 의료계 성평등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의 성차별과 차별적 내부규율을 문제삼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료계 성차별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전주혜 의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3세 여성을 성매매에 나서도록 하고 돈을 받아 챙겨 실형을 선고 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에 대해 비판하자 최병준 대전지법원장은 “성인지 감수성 부족 지적에 공감한다”며 “재판연구회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의당 정혜영 의원이 통계청 국감에서 동성부부도 인구주택총조사 ‘혼인 통계’ 수치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주목을 받았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주주 3억 원’ 완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성폭력 양형 기준 마련



양형 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에 따라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이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했거나 재질이 나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두 건 이상 저지른 경우에는 최대 29년 3월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또 상습범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최소 10년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폭법이라든지 아동법 등의 법 개정이 시행됐고, 양형 기준까지 대폭 강화돼 디지털 성범죄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0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양형기준

	구 분	감 경	기 본	가 중
1	제작 등	2년 6월~6년	5년~9년	7년~13년
2	영리 등 목적 판매	2년 6월~5년	4년~8년	6년~12년
3	배포 등	1년 6월~4년	2년 6월~6년	4년~8년
4	아동·청소년 알선	1년 6월~4년	2년 6월~6년	4년~8년
5	구입 등	6월~1년 4월	10월~2년	1년 6월~3년

02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구 분	감 경	기 본	가 중
1	촬영	4월~10월	8월~2년	1년~3년
2	반포 등	4월~1년 4월	1년~2년 6월	1년 6월~4년
3	영리 목적 반포 등	1년 6월~4년	2년 6월~6년	4년~8년
4	소지 등	-8월	6월~1년	10월~2년

03 허위영상물 등의 배포 등

	구 분	감 경	기 본	가 중
1	편집 등	-8월	6년~1년 6월	10월~2년 6월
2	반포 등	-8월	6월~1년 6월	10월~2년 6월
3	영리 목적 반포 등	4월~1년 4월	1년~2년 6월	1년 6월~4년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구 분	감 경	기 본	가 중
1	협박	9월~1년 6월	1년~3년	2년~4년
2	강요	1년 6월~4년	3년~6년	5년~8년

05 통신매체 이용음란

	구 분	감 경	기 본	가 중
1	통신매체이용음란	-6월	4월~10월	8월~1년 6월

사회 곳곳에서 이뤄지는 성평등 의식 확산



경찰 마스크트인 '포순이'가 21년 만에 치마 대신 바지를 입고 속눈썹을 없애고 단발머리는 귀 뒤로 넘겼다. 지난 7월 경찰위원회는 '경찰관 상징 포돌이·포순이 관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포순이의 모습이 성별고정관념과 성차별적 편견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포돌이처럼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긴 것은 귀를 열어 국민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듣고 치안 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수집해 각종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양육비 안주면 형사처벌 실명공개 가능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정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가 다시 1년 내에 돈을 주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 자녀나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어긴 경우 국가가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을 금지시키거나 형사처벌까지 집행할 수 있다.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기 위해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을 이용할 수 있다. 소송부터 채권 추심, 이행 점검까지 진행하며 양육비 채권자는 1회의 신청만으로 종합지원서비스가 가능하다.

양육비이행관리원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서울지방조달청), 5층
-  1644-6621
-  www.childsupport.or.kr



올해의 부정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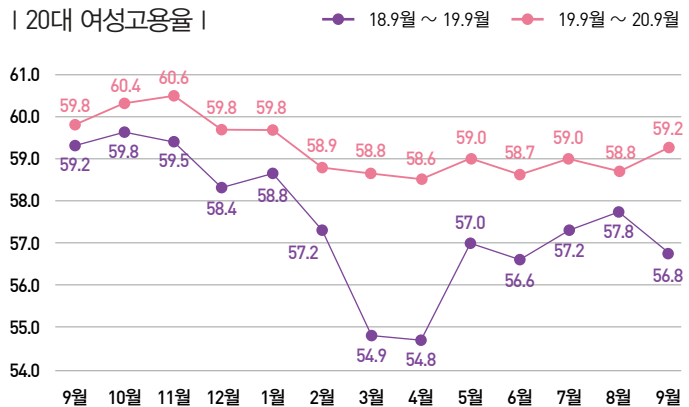


소리없는 학살 20대 여성, 왜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통계청 조사결과, 2019년 20대 여성 자살율이 전년대비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도 여성 자살 사망자는 지난해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여성 자살 사망자는 192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1%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남성이 6.1% 감소하고 전체 사망자도 2.4% 줄어든 것과 대조적인 결과로 1987년 이후 여성 자살율만 증가한 것으로는 첫 사례다. 20대 여성의 자살율 증가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자리와 경제적 문제를 주요인으로 꼽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여성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여성 취업자 수는 1158만 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만 3000명으로 2.4% 줄었다. 이는 남성 취업자 감소폭보다(10만 9000명, 0.7%) 3배 가량 높은 수치다.



20대 여성고용률



출처: 한국여성정책개발원

N번방 사건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디지털성폭력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까지 다수의 메신저 앱을 이용해 '박사', '갓갓'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한 피의자가 성착취물을 유포한 성범죄 사건이다. 피의자들은 '스폰 알바 모집' 같은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얼굴이 나오는 알몸사진을 받아 이를 발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성 착취 사건이다. 피해자 중에는 중학생 등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박사방의 피해자만 74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 규모는 박사방 '맛보기 방' 회원 1만 명 이상, 박사방 유

료 회원 3만 명 내지 수 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이후 일부 여성단체와 시민단체에서는 정부에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적극적인 국제 공조 수사 협조 요청 ▲디지털 성범죄 전담 부서 신설 ▲양형 기준 강화 및 불법 수익 환수를 위한 강력한 제도 마련 ▲합정 수사 허용 ▲플랫폼에 대한 처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계기로 올해 4월에는 N번방 사건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무심코 내뱉은 한 마디와 그 말에 담긴 편견 '먼지차별'



먼지차별은 미국 시사용어 '마이크로어그레션'(microaggression)에서 나온 단어이다. '아주 작은'이라는 뜻의 마이크로(micro)와 '공격'이라는 뜻의 어그레션(aggression)의 합성어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도처에 깔린 아주 작은 먼지만큼 해로운 소소한 차별'을 뜻한다. 성 차별, 나이·성정체성·장애 등 소수자들에게 무심코 하는 말이지만 상대방이 모욕감이나 적대적 감정을 느낀다면 먼지차별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성별이분법을 내포한 '새색시 같은 남자', 전통적 여성 역할을 강조하는 '내조 외교에 나선 영부인' 등의 단어 등도 개선해야 할 용어다.



함께하고



충청남도 1인가구 실태
빅데이터로 본 충남의 인권
돌봄 위기 속 '알쓸' 노무 상식
2020 연구과제 목록과 개요

행복지수 떨어지고 우울감 쌓이는 충남의 1인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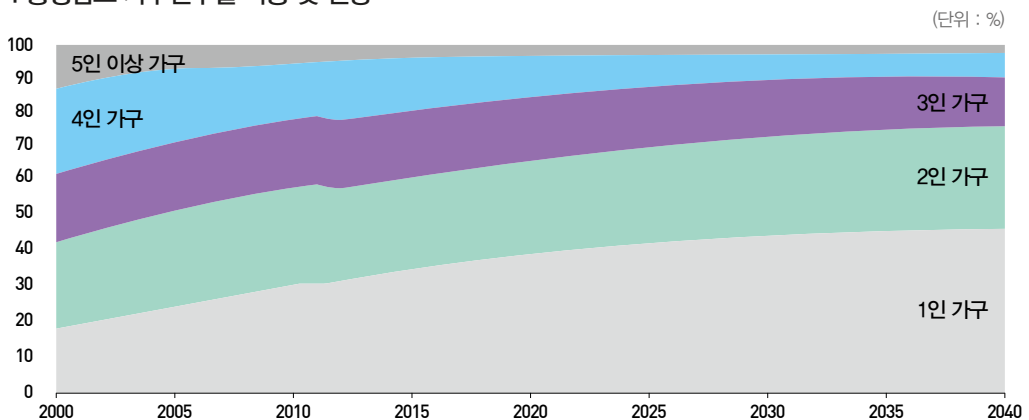
현재 충남의 1인가구는 전체 가구 유형 중 30.3%로 비중이 가장 높지만 다인가구에 비해 삶의 만족도 및 행복도는 낮고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1인가구의 증가 추세 속에 지역과 성별, 연령대, 거주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어 정책 수요를 면밀하게 예측하는 과정이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2020년 임우연 선임 연구위원은 '충청남도 1인가구 실태 조사'를 수행하며 정책적 지원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와 근거를 마련했다.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

1인가구 삶의 전반

충남의 1인가구 비중은 전국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40년에는 전체의 39.5%인 427천 가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2020년 현재 충남의 1인가구 수는 전체 가구 유형의 30.3%를 차지하며, 가장 비중이 높은 가구 형태이다.

I 충청남도 가구원수별 비중 및 전망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충남의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도는 낮고 우울감은 높았다. 1인가구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5.65점으로 다인가구 6.12점보다 낮았으며, 행복도 역시 1인가구는 5.70점으로 다인가구 6.24점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반면 우울감의 정도는 1인가구의 경우 3.93점으로 다인가구 3.59점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10점 만점)

I 주관적 웰빙 정도 비교

(단위 : 시간:분)

가구원수 구분	주관적 웰빙				
	삶에 대한 만족도	일에 대한 가치	행복 정도	근심·걱정 정도	우울 정도
1인가구	5.65	5.74	5.70	4.42	3.93
다인가구	6.12	6.29	6.24	4.32	3.59
t-value	-15.13	-18.01	-17.15	3.02	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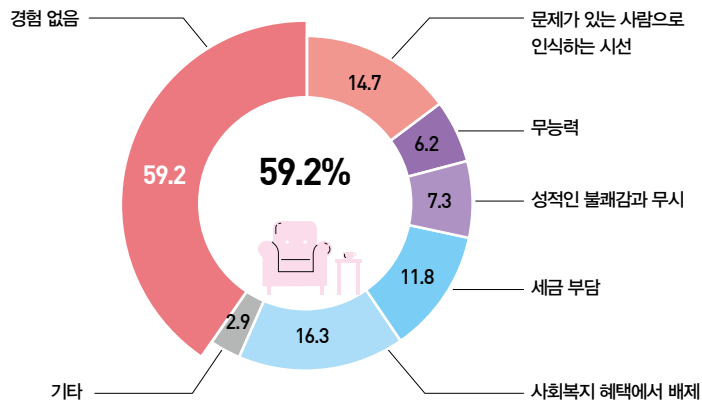
주 : *** :p<0.01, ** :p<0.05, * :p<0.1

자료 : 2019년 충남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또한 실태조사에 참여한 전체 1인가구 중 59.2%가 혼자 산다는 이유로 차별과 무시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I 혼자 사는 것으로 인한 차별/무시 경험

(단위 : %)



자료: 2020년 충청남도 1인가구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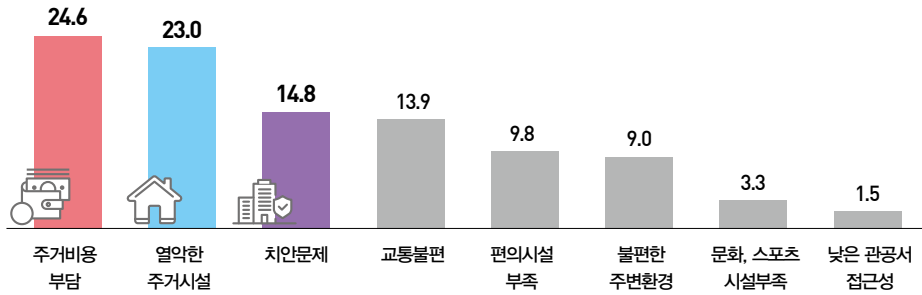
향후 원하는 가구형태에 대한 질문에는 남성 1인가구의 경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는 비율(37.5%)이 가장 높았으며, 여성 1인가구의 경우 지금처럼 그대로 1인가구로 살고 싶다는 비율(42.2%)이 가장 높게 나타나 성별로 1인가구 삶의 유지와 향후 전망에 대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주거

1인가구의 거주지에 대한 불만족 이유 1순위는 주거비용 부담(24.6%)이었으며, 열악한 주거 시설(23.0%), 치안문제(14.8%) 순으로 나타났다.

I 현 거주지 불만족 이유(1순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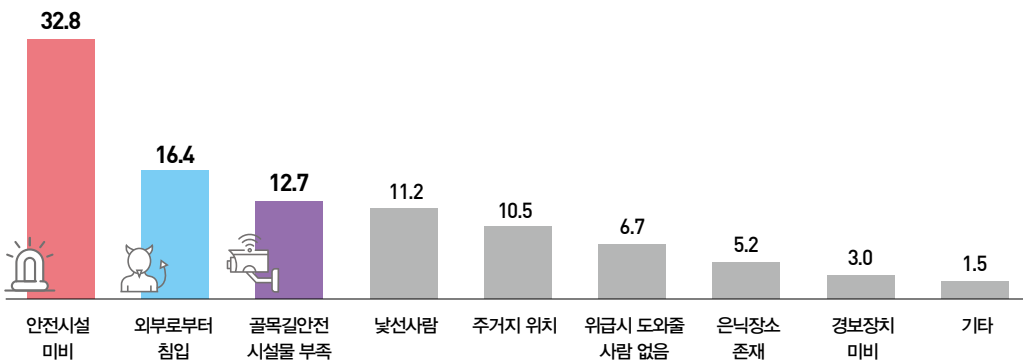
자료: 2020년 충청남도 1인가구 실태조사

안전

거주지 안전과 관련하여 불안하다고 인식한 경우, 불안 이유에 대해 안전시설 미비를 1순위로 응답했다.

I 현 거주지의 불안에 대한 이유(1순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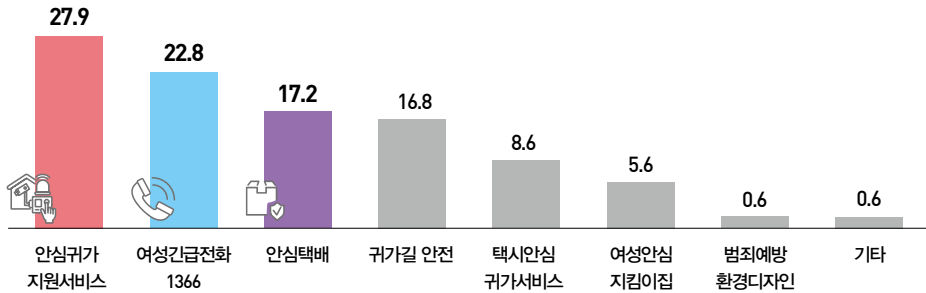
자료: 2020년 충청남도 1인가구 실태조사

안전을 위한 개인의 노력으로 남성 1인가구의 경우 체력단련 및 호신술을 배우는 등 적극적인 대비를 한다는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 호신용품 구입, CCTV,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 등 비교적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고연령대에서는 안전한 삶을 위해 이웃주민과 친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지역사회의 안전정책에 대한 인지율은 여성과 남성 모두 안심귀가서비스(27.9%), 여성긴급전화(22.8%), 안심택배(17.2%)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여성안심지킴이집(5.6%)과 범죄예방환경디자인(CEPTED)(0.6%)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매우 낮아 다양한 안전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홍보 노력이 요구됐다.

I 안전 정책별 인지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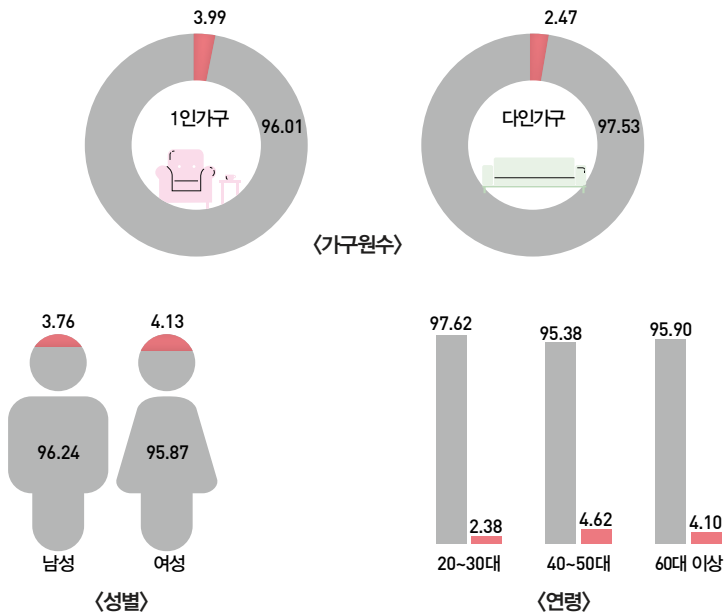
자료: 2020년 충청남도 1인가구 실태조사

건강

1인가구의 자살 충동율(4.0%)이 다인가구(2.5%)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40대~50대 1인가구의 자살 충동율(4.6%)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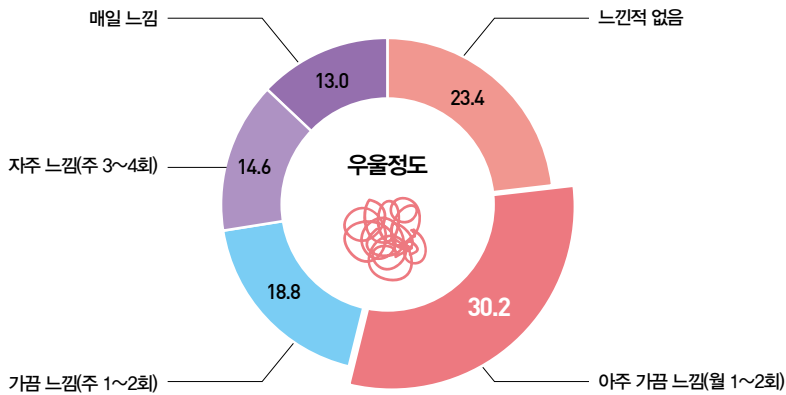
I 자살 충동 여부 및 충동 이유 비교

■ 있음 ■ 없음 (단위 : %)



I 우울 정도

(단위 : %)



자료: 2020년 충청남도 1인가구 실태조사

경제

충남의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1인가구의 경우 자신의 귀속계층을 '하'로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58.3%였으나 다인가구의 경우 31.8%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사회·경제적 지위를 낮은 수준(귀속계층-하)으로 인식하는 여성 1인가구(64.1%)의 비율이 남성 1인가구(48.4%) 비율보다 높았다.

I 1인가구와 다인가구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 비교(2019)

(단위 : %, 점, 6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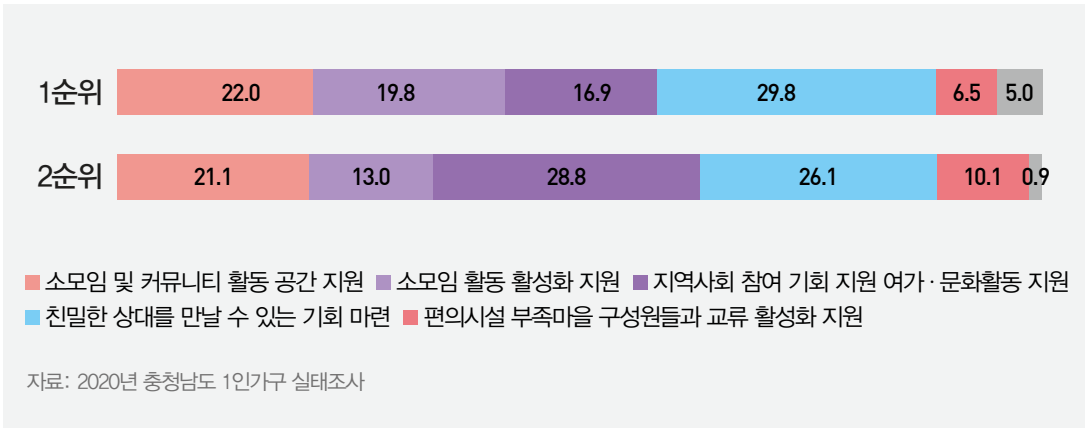
구분		사회경제적 지위						평균(점)
		하-하	하-상	중-하	중-상	상-하	상-상	
가구 원수	1인가구	27.95	30.35	24.57	15.49	0.90	0.74	2.33
	다인가구	10.57	21.23	35.95	30.09	1.38	0.79	2.93
성별	남성	23.11	25.28	28.11	20.78	1.39	1.33	2.56
	여성	30.78	33.31	22.50	12.40	0.62	0.39	2.20

주 : *** :p<0.01, ** :p<0.05, * :p<0.1

자료: 2019년 충남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여가 및 사회적 관계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여가 및 문화활동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화예술 관람의 경우 1인가구의 참여율은 28.5%로 다인가구의 참여율 45.3%에 비해 매우 낮았다. 관광활동 참여에 있어서도 1인가구(58.6%)는 다인가구(74.5%) 보다 참여율이 현저히 낮았다.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여가·문화활동 지원(29.8%)이 1순위라고 응답하였다.



I 정책 방향 모색 및 향후과제

- 지역별, 연령별, 성별 차이와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 정책 모색
- 각 기초자치단체 인구, 가족, 복지 정책 등 지역정책과의 연계
- 청년, 중장년, 노인 등 각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발굴
- 주거안정, 환경개선, 필요공공시설 조성 등 맞춤형 지원 정책 제공
- 정서·심리적 지원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
- 거주지 안전시설 보완, 안전정책에 대한 홍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 연령대별 건강관리와 의료접근성의 지역별, 차별화 정책 제공
- 적극적인 위기 1인가구 발굴 및 지원
- 1인가구의 여가·문화활동 촉진을 통한 사회적 고립 해소
- 1인가구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인식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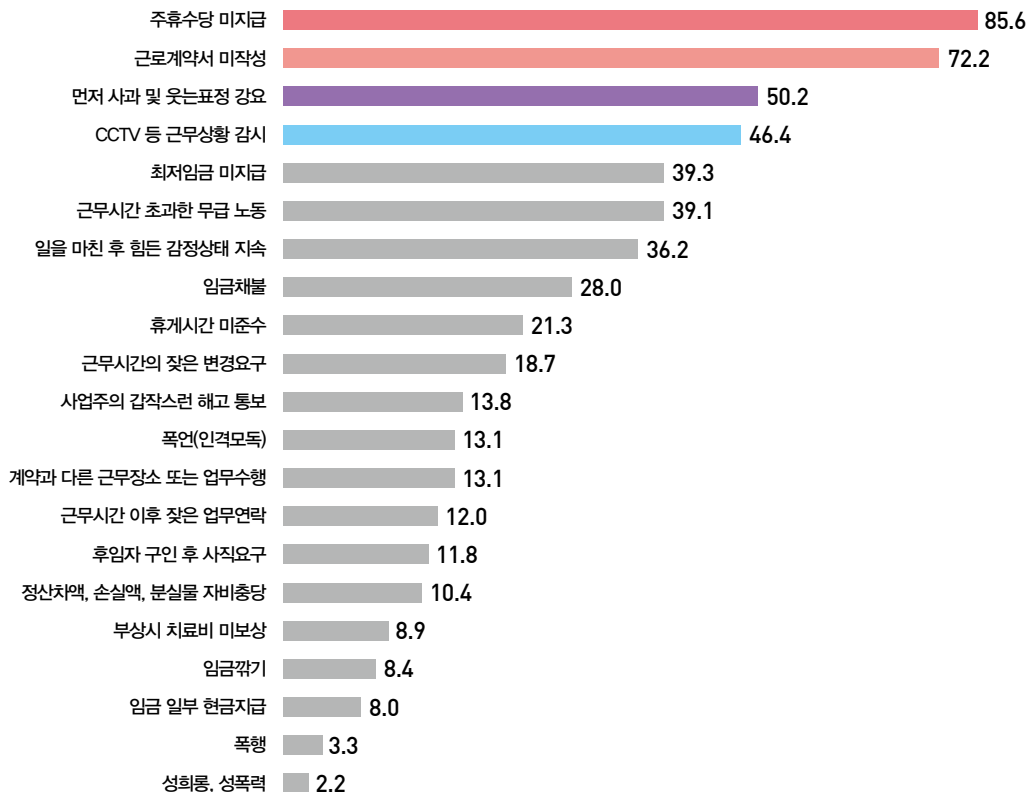
빅데이터로 본 충남의 인권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으며 대면 노동이 필요한 노동자나 아이 돌봄이 필요한 취약 계층은 인권에 대한 위협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2020년 연구과제가 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와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진 이유이기도 하다. 2020년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주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여성농업인, 사회복지종사자 등 비교적 사회적 관심이 미온했던 계층의 인권 실태를 살펴봤다.

충남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권 침해는 어디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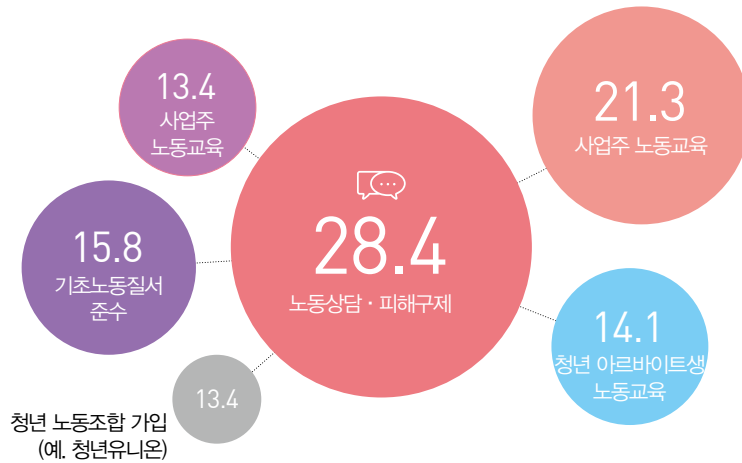
아르바이트 노동권 침해 실태

노동권 침해의 주요 유형으로는 주휴수당 미지급 85.6%, 근로계약서 미작성 72.2%, 감정노동(먼저 사과 및 웃는 표정 강요) 50.2%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현장 개선을 위한 우선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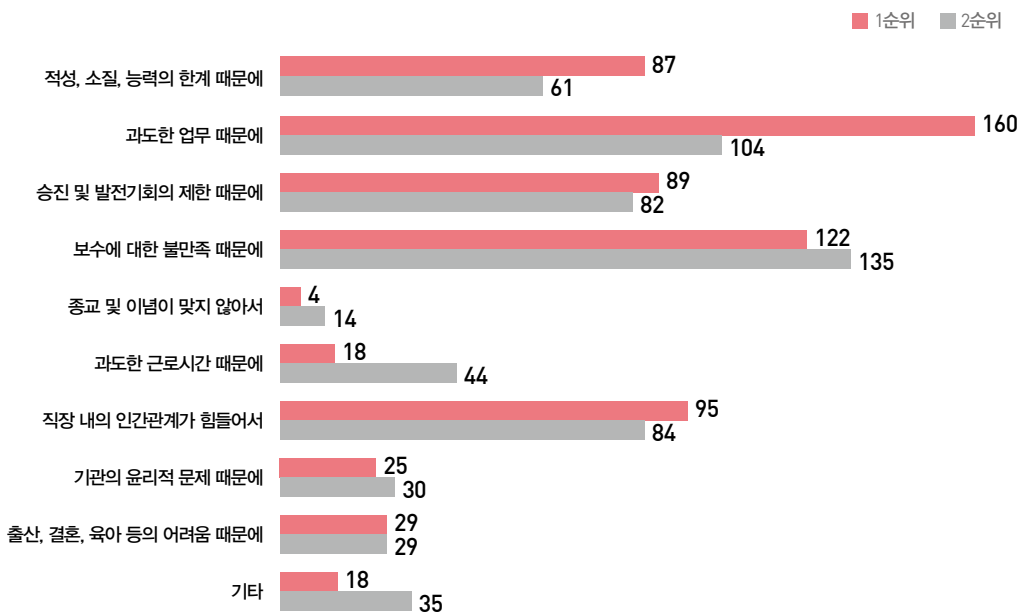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현장 개선을 위해 노동 상담 및 피해구제(28.4%)와 사업주 노동교육(21.3%)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충남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인권실태 현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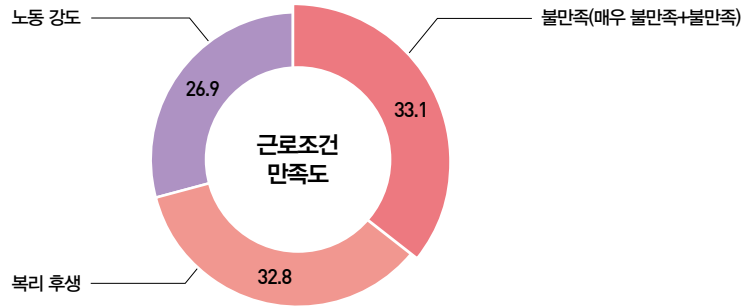
지난 1년간 이직 및 사직을 고려한 이유

지난 1년 동안 이직 및 사직에 대해서 전체의 50.7%가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려 이유로는 과도한 업무가 가장 높았다.



근로조건에 대한 만족도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로조건만족도는 임금 수준에 대한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복리 후생이 32.8%, 노동 강도가 26.9%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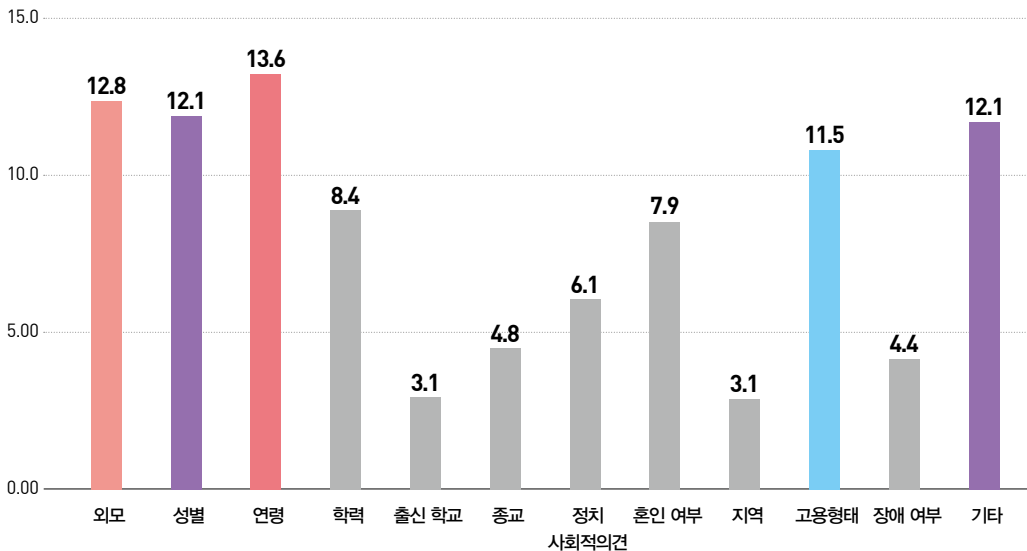


기본권 보장은?

시설 내 의사소통 기구 유무는 직원 공식협의체가 55.4%, 고충처리위원회가 54.4%, 노사협의회가 26.7%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 및 배제 등의 인권침해는 전체 사회복지종사자 중, 20.8%가 경험했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설 특성별로는 이용시설(23.2%), 여성 가족부 소관 시설(25.9%), 종사자 10인~20인 미만 시설(22.2%)이 다른 시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인권침해 경험 및 목격 내용은 연령으로 인한 차별 및 배제(13.6%), 외모(12.8%), 성별과 기타(12.1%) 순으로 나타났다.

1 차별 및 배제 등의 인권침해 경험 및 목격(복수응답)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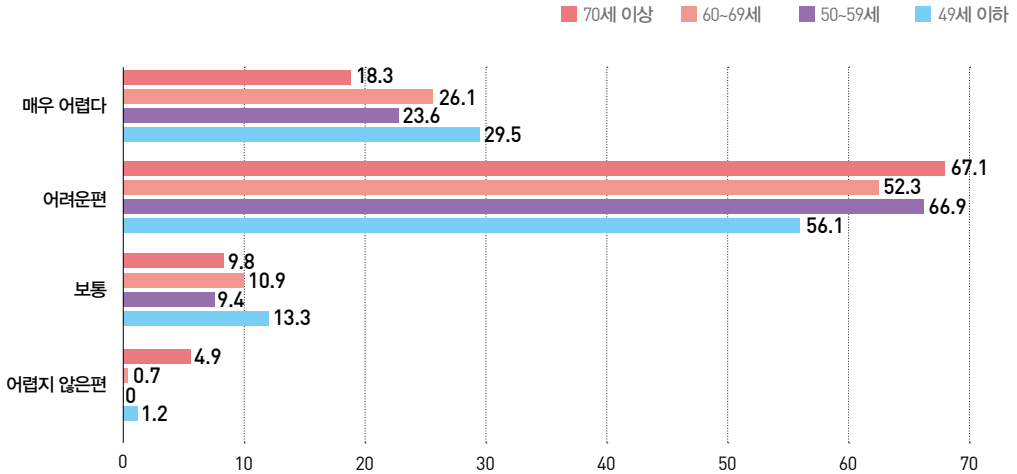


여성농업인 일·생활 균형 실태는?

농업과 가사·육아 병행 '어렵다'

농업 및 가사노동의 병행 어려움의 경우 어려운 편이다(62.1%), 매우 어렵다(25.4%), 보통이다(11.2%), 어렵지 않은 편이다(1.3%) 순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70대 이상(67.1%), 50대(66.9%), 60대(62.3%), 49세이하(56.1%) 순으로 '어려운 편이다'라고 응답했다.

I 농업 및 가사노동 병행의 어려움



'가사 및 돌봄 활동 참여시간'의 평균시간은 3시간 36분이고 4시간(42.9%), 3시간(32.3%), 2시간 이하(18.3%), 5시간 이상(6.5%) 순으로 나타났다.

I 가사 및 돌봄 활동 참여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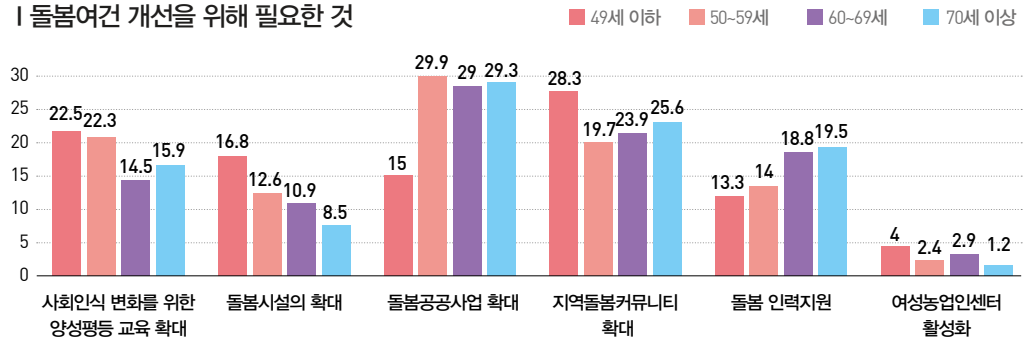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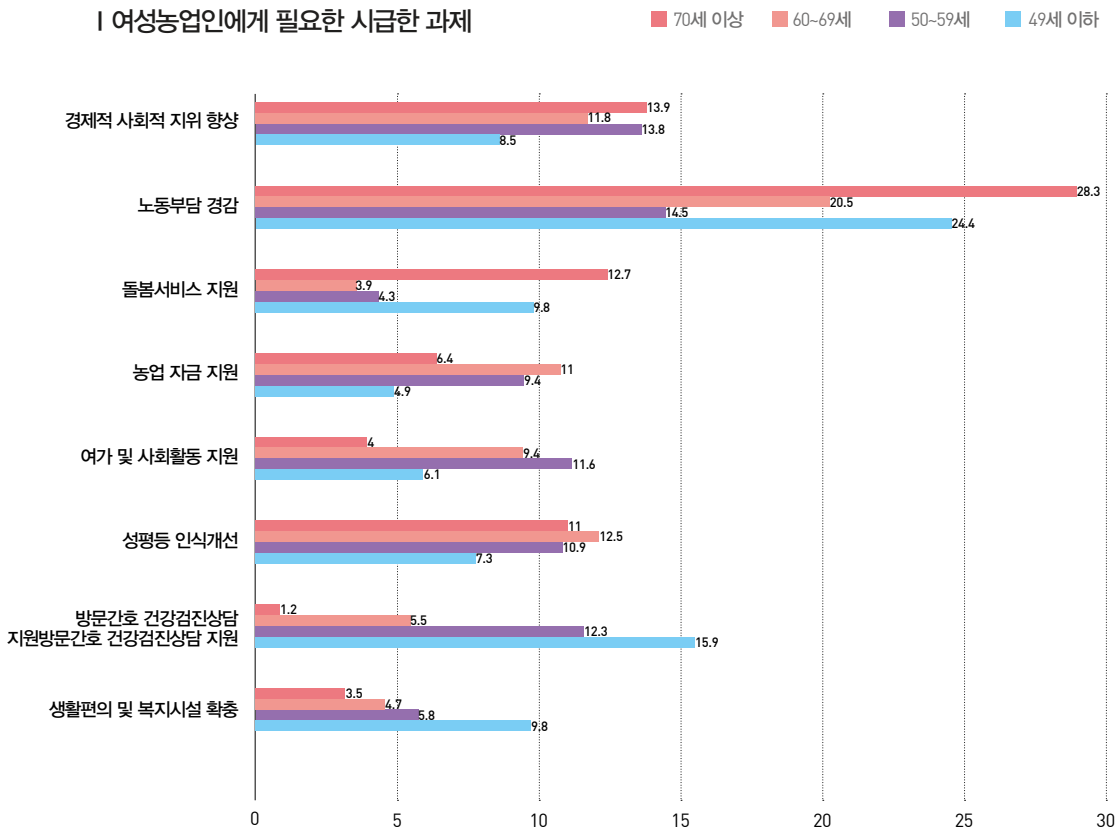
돌봄 개선 여건을 위해 필요한 것은?

여성농업인의 돌봄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돌봄공공사업확대 및 지역 돌봄 커뮤니티 확대 (24.6%),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양성평등교육 확대(19.0%), 돌봄인력지원(16.0%), 돌봄시설의 확대 (12.9%),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2.9%)순으로 나타났다.

I 돌봄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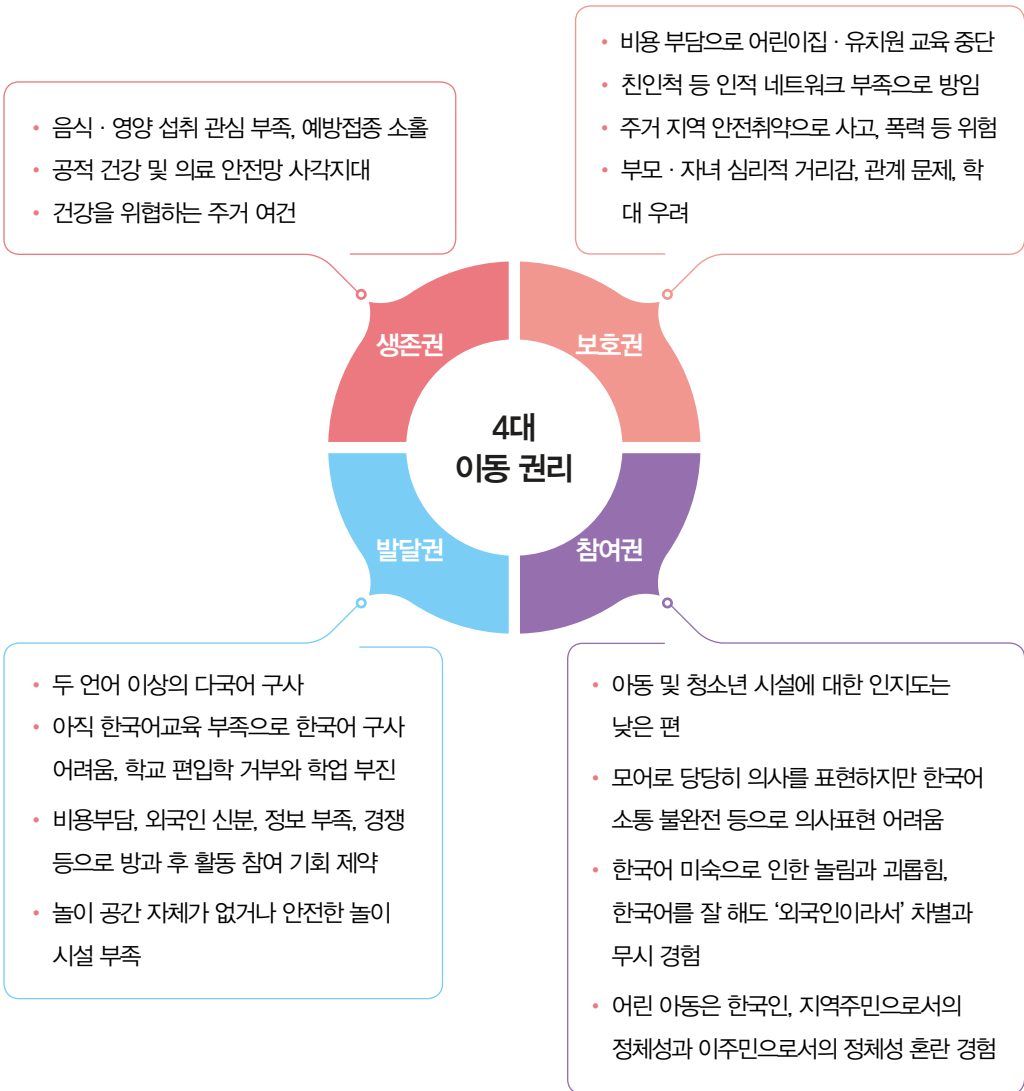
I 여성농업인에게 필요한 시급한 과제



이주배경아동의 인권 실태는?

이주배경아동 권리, 어디까지 보장받고 있나?

2020년 5월부터 8월 사이 이주배경가정 부모 및 아동 23명, 현장 활동가 10명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아동권리인 생존, 보호, 발달, 참여 권리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 여건 악화로 외국인 가족 아동의 성장 여건도 악화돼 있었다.



돌봄 위기 속 알아 두면 쓸모 있는 노무 상식

코로나19로 사회적 돌봄 체계가 무너지면서 결국 육아는 고스란히 여성의 몫으로 남게 됐다. 특히 가족돌봄휴가는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사용자의 60%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돌봄재난은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가사 노동 전담자’라는 가정 내 사고방식부터 깨야 해결이 가능하다. 배우자 출산 휴가와 유연근무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 돌봄 재난 속 가족구성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노무 상식을 소개한다.

자료: 자료제공_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 발간 <똑똑한 직장맘 별책부록>

· 남편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의 법적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다. 단,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1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며, 해당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 중 1회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분할사용 일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단, 분할사용 시 두 번째 사용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해야 한다.



유연근무제, 부부가 탄력적으로 사용해요!

유연근로제는 회사 업무 및 근로자 개인별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의 근무 방식을 다양한 형태로 변경시켜 운영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 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등 법령에서 정한 도입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효력이 인정된다.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한다.



유연근무제 종류

구분	주요 내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 51조)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는 법정근로시간 내(주40시간)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 - 2주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 2주 초과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 52조)	1개월 이내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이나 종료시각,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2항)	출장 등 사유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 필요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소정근로시간, 통상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시간
재량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업무 성질상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 노사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근무제도

갑작스런 돌봄 상황에서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찬스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고용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는 경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다. 첫째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둘째 사업주가 고용센터를 통해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경우, 셋째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증명했을 때다. 만약 사용자가 소정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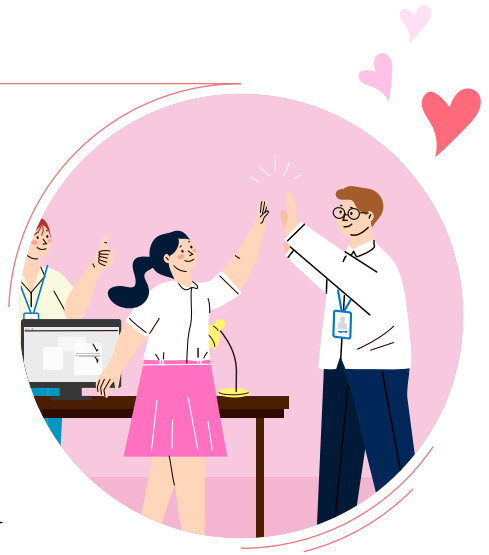
직장 내 괴롭힘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대해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 회사에 고충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충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남녀가 함께 사용해요! 가족돌봄휴직 · 휴가제도

가족돌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연 최대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1회 기간은 30일 이상, 가족돌봄휴가 기간 포함)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대상 가족의 성명 ·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 개시 예정일 및 종료하려는 날, 신청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허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돌봄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다.



2020 연구사업 실적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그동안 충청남도 내 여성농업인과 결혼 이주 여성, 돌봄이 필요한 아동, 일자리를 찾는 여성 등 각계각층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책을 연구하고 도정반영을 위해 노력해왔다. 2020년에도 1인가구 실태조사와 충남의 성인지 통계 등 굵직굵직한 연구는 물론, 지역 곳곳의 현안들을 찾아 정책제언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I 기본과제

연번	과제명	연구자
1	충청남도 1인가구 실태조사 연구 지원 방안	임우연
2	2020 충남 성인지 통계	김종철
3	충남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실태와 정책과제	안수영
4	충남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위기개입 효과성 분석	송미영
5	충남 이주배경아동 지원방안	우복남
6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연구	김영주
7	충남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실태조사	맹준호
8	충남 여성농업인 일·생활균형 제고 방안 연구	안세아
9	충남 성인지 예·결산서 종합분석 연구	태희원

I 정책과제(15건)

연번	과 제 명	연구자
1	충남 도내 여성인력개발센터 시범평가 분석 연구	안수영
2	충청남도 도서지역 여성어업인 건강증진 사업 발굴	임우연
3	충남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방안(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안수영
4	충남 비인가대안학교 현황 및 타시도 실태조사	송미영
5	충남 아동, 청소년 대상 참여형 성평등교육 콘텐츠 개발	이채민 조윤진
6	충남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충남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중심으로	태희원
7	충남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사례집 발간	태희원
8	지역성평등지수 개편안 분석 및 대응 방안	임우연
9	여성긴급전화 1366충남센터 상담원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맹준호
10	충남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사회통합 시책개발	우복남
11	충남 학교 밖 청소년의 소재 및 규모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송미영
12	충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사업 활성화 방안	우복남
13	충남 일반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맹준호
14	충남 여성시민사회활동가 역량 강화 방안 연구	안세아
15	충남 포스트코로나시대 아동 돌봄 강화 방안 연구	안세아

I 수탁과제

연번	과 제 명	연구자
1	보령시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임우연
2	충청남도 북한이탈여성 인권실태조사	송미영 우복남
3	충남형 방과후 초등돌봄 통합체계 구축방안 기초 연구	맹준호 안세아
4	충남형 영유아 돌봄공동체 모델 개발 연구	안세아 맹준호
5	제5차 충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태희원 안세아
6	2020년 충남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위탁	김종철

I 공동연구

연번	과 제 명	연구자
1	충남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송미영



공유하며



충남여성풀뿌리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찾아가는 충남여성풀뿌리자치학교

시·군 양성평등 담당자 젠더아카데미

경찰청 양성평등 담당자 젠더아카데미

지역 구석구석에서 이뤄지는 변화

2020 '햇'했던 여성 소모임 6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풀뿌리여성소모임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2014년부터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사업을 진행해왔다.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2014년에는 2개 소모임만 지원하다 점차 규모를 확대해 현재는 총 6개 소모임에게 각 3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활동의 제약도 많았던 2020년이었지만 지역의 여성활동가들은 재난 상황에 현명하게 대응하며 각자의 기발한 방식으로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 왔다.



엄마와 딸이 만드는 성평등 세상

휴먼러브

20대 딸과 50대 엄마로 이뤄진 모녀 동아리로 총 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여성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드는 사업에 지원했으며, 주로 여성주의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활동하고 있다.



휴먼러브의 동아리 회의시간



1년반의 성장축구를 통해 본 여성인권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강의

청소년의 시각으로 바라보다

청소년 페미니즘 연구모임

‘청소년, 청년의 눈으로 본 온양 원도심 여성 인권!’이라는 주제로 5명의 회원들이 온양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페미니즘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온양 원도심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하며 참가 학생들이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시각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음악극 '춘향 아리랑' 공연 장면

춘향전의 비밀을 밝혀라!

문화공감 어울소리

아산에서 활동하는 5명의 소모임으로 여성주의 강연을 주로 진행했다. 올해는 '아리랑 고개 끝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주제로 공연하며 춘향전에 숨어있는 여성과 남성애에 대한 사회적 성차별을 찾아내 관객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



독서를 통한 변화

페미당당당

6명의 회원으로 구성됐으며 매달 한 권의 책을 읽고 이를 주제로 토론하는 독서 모임이다. 충남의 여성 독립운동가 찾아보기, 작은 책 콘서트 진행 등 올해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의 여성활동가로 또 한 번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작은책 콘서트 장면

다양한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공책여행

'공주 책 읽는 여성 행동'의 줄임말로 다양한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며 회원들 간에 연대를 이루는 모임이다. 5명의 회원이 활동하며 지역의 여성, 소수자, 교육 등의 문제에 대응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페미니즘 치유낭독회, 포괄적 성교육&디지털 성폭력 강의 진행, 충전여행 워크숍 등 2020년에도 바쁘게 움직였다.



페미니즘 치유낭독회

전 세대를 아우르는 여성파워

난장팻

금산 지역 3명의 회원이 만든 모임으로 20대에서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며 활동하고 있다. 세대를 초월한 키링 만들기, 북아트, 면 생리대 만들기, 드로잉 독후감, 실크스크린 워크숍 등 예술, 출판 등 사업 영역의 한계가 없다.



손으로 그리는 독후감 시안

청소년의 눈으로 본 온양 원도심 여성인권!

충남여성플뿌리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아산시는 2019년부터 성매매집결지 장미마을을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과 지지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사)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는 ‘청소년의 눈으로 본 온양 원도심 여성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과 함께 장미마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절박한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아도 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0년 10월 7일부터 주 1회 씩 총 3회에 걸쳐 진행됐다. 마지막 교육일정이 있던 17일 참여 청소년들은 여성인권 홍보를 위해 직접 거리로 나섰다.



(사)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는 청소년의 인권과 문화가 존중받고 보호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충남지역의 도민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뜻을 모아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최근에는 청소년 인권문화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청소년 페미니즘 연구모임’을 운영 중에 있다. 올해 10월에는 ‘2020 충남여성 풀뿌리소모임 성장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청소년의 눈으로 본 온양 원도심 여성인권’ 교육 프로그램이 선정돼 여성정책개발원의 지원을 받기도 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양 원도심의 현재와 미래, 교실내 여성 혐오, N번방 성 착취를 통해 본 여성 인권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최근 원도심 재생사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장미마을에 대한 통찰의 시간이 있어 참신했다는 평을 받고 있기도 하다.

6·25 직후 아산시 온천동 일대에 시장이 발달하고 유동인구가 늘면서 여인숙과 술집이 집중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변화와 함께 속칭 ‘장미마을’이라는 성매매업소 집결지가 형성됐고 이때부터 온천동의 어두운 역사가 시작됐다. 이후 아산시는 원도심 일대 도시재생 사업을 기획하고 2017년에는 장미마을 내 빈상가를 매입해 시민을 대상으로 건전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친화적인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어울림센터를 유치했다. 2019년에는 장미마을 일원의 성매매업소에 대한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활 및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2015년까지 23개였던 성매매업소가 2020년 10월에는 7개 업소만 남아 영업 중이며, 점점 시민 친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드림캐처로 장미마을에 희망 전해요!

오늘은 교육 마지막 날. 청소년들은 장미마을 일대 성매매업소 종사자들과 주민들에게 드림캐처를 만들어 선물할 예정이다. 이날의 첫 프로그램은 생태문화교육연구소 조애경 소장의 지도에 따라 학생들이 직접 드림캐처를 만드는 시간. 드림캐처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악몽을 꾸지 말라는 의미로 아이들의 머리맡에 달아주던 토속 장신구다. 버드나무로 만든 고리에 거미줄처럼 끈을 엮은 후, 깃털이나 구슬 등을 장식한 것으로 깃털은 좋은 꿈을, 거미줄처럼 엮은 끈은 악몽을 잡는다는 의미가 있다.

처음 만드는 드림캐처가 생소한 듯 노끈을 엮었다 풀었다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여기저기 보이지만 표정만큼은 하나같이 진지하다. 이번 프로그램에 소수인원으로 참여한 남학생들 중 한 명인 송남중 1학년 이정민 학생도 함께 참여한 친구와 의논하며 드림캐처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오늘 드림캐처 만들기는 정말 쉽지 않지만 그동안 세 번의 수업은 정말 의미 있었어요. 전혀 알지 못했던 페미니즘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문화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이번 강연에는 시민단체 청소년 상담 분야 종사자들이 참여해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아산 YMCA에서 청소년 동아리 교육을 맡고 있는 고은혜 간사도 이번 강연은 상담 교사로서 자신의 시각을 넓히는 기회가 됐다.

“이번 강의를 통해 청소년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문제를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청소년들을 상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여성혐오’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암울한 공간에 스미는 별

두 시간 남짓, 여기저기서 한 땀 한 땀 정성들여 만든 작품이 완성되자 학생들은 거리로 나왔다. 삼삼오오 짝지은 학생들이 한손에는 드림캐처를 또 한손에는 ‘성평등 거리를 만들자’

는 홍보물을 들고 장미마을로 향했다. 아직 환한 대낮이라 성매매업소의 문이 굳게 잠겨있다. 참가 학생들은 아쉬운 마음에 문틈으로 홍보물 밀어 넣거나 문고리에 드림캐처를 걸어뒀다. 또 몇몇 학생은 인근 상점을 돌며 홍보물을 전달하기도 했다.

온양여중 1학년 남상유 학생은 처음 들러 본 장미마을 골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렇게 많은 성매매업소가 있는 줄 몰랐어요. 알게 되니 걱정도 되고, 이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잘 섞였으면 좋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 근처에 살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부끄럽고 지금이라도 이분들과 동네가 변했으면 좋겠어요.”

드림캐처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밝았던 송남중 1학년 박천웅 학생도 “멀리서 봤을 때 건물이 특이하지 않아 전혀 이런 곳이라 생각 못했는데 설명 듣고 직접 와보니 당황스러워요”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신문기사와 TV에서만 접했던 장미마을의 실상이 눈앞에 펼쳐지니 학생들의 얼굴엔 복잡한 심경이 그대로 표출됐다. 당황한 학생들을 다독이던 (사)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의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신아롱 국장은 이번 프로그램의 의미를 '똑바로 마주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무작정 성매매는 나쁜 것, 숨겨야 하는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죠. 이곳이 어떤 역사에서 시작됐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학생들에게 잠시나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이번 프로그램은 의미가 있습니다.”

행사를 마칠 시간, 장미마을 근처 야외 공연장에서 음악소리가 들려온다.

“아,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 주리라”

오늘 사회의 어두운 면을 접한 청소년들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내려앉듯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가사가 동네 곳곳 은은히 퍼져나간다.



여성들이여, 나대자! 나, 되자!

충남여성플뿌리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단풍이 곱게 물든 지난 가을, 충청도와 전라도의 뜨거운 여성들이 만났다. 이름하여 ‘충’청도에서 ‘전’라도로 이어지는 ‘여’성들의 ‘행’동, 충전여행! ‘공주책임여성행동’(이하 ‘공책여행’)이 마련한 공주시 여성활동가 임파워링 워크숍 두 번째 시간으로, 전라도의 ‘성폭력근절을 위한 지리산여성회의’와 ‘아무튼 유랑단’이 함께 하였다. 남원에서 시작한 행사답게 첫날에는 고전 <춘향전>의 주인공들을 호출해 여성활동가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며 끝없는 이야기를 쏟아내기도 했다.



공주 여성 플뿌리소모임 '공책여행'의 성장기

2019년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사업에 선정되었던 '공책여행'은 성공적인 활동을 인정받아 2020년에도 지속사업팀으로 뽑혔다. 사업 첫 회였던 작년에는 '페미니즘 동네책방 복합커뮤니티 여성커뮤니티 전용공간 만들기'에 매진했던 해였다. 함께 모임 '공책여행 아지트'도 마련했고,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 그동안 읽은 책들을 토론했다.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가 너무나 높아서 <빨래하는 페미니즘>, <이갈리아의 딸들>, <내 안의 가부장> 등 웬만한 여성주의 책들은 섭렵하다시피 했다.

“책을 많이 안 읽어도 된다고 해서 들어왔더니, 언니들이 매주 한 권씩 읽도록 하드 트레이닝 시키지 뭐예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가졌던 불만이나 분노가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많이 울기도 했어요. 이젠 제가 더 찾아 읽으려고 노력해요.”

함께 공부하며 성장해온 '공책여행'은 올해부터 조금 더 다양한 계층을 만나 소통하고 연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공주여성들의 나, 됨'이라는 테마에서 읽을 수 있듯, 조금 더 '나대며'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고, 나다움을 찾아 나섰다. 7월에 공주시 여성활동가 임파워링 워크숍으로 치유낭독회를 열었고, 시니어와 함께 영화를 보고 대화 나누는 시네마토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폭력 토포강의,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성교육 등 다양한 계층을 향해 손을 뻗는 노력도 했다. 그리고 10월에는 '공주시 여성활동가 임파워링 워크숍2'를 열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충전여행'이다.



충전여행! 여성주의의 눈으로 춘향전을 보다

충전여행은 그동안 서로의 활동을 지켜보며 응원하던 충청도와 전라도의 여성활동가들이 함께 행동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출범해 지역 여성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성폭력근절을 위한 지리산 여성회의'와 페미니즘 문화예술단체인 '아무튼 유랑단', 그리고 '공주책읽는여성행동'이 지리산의 품에서 만나 공연을 감상하며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무튼 유랑단은 성폭력예방교육이나 페미니즘 이슈들을 공연 형태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유랑이 우선 목적인 분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웃음) 코로나 때문에 관객과 무대가 없어 공연 못 했던 것을 오늘 보여드리려 해요. 저희한테 처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무튼 유랑단'의 회원들이 직접 대본을 만들고 연기한 공연의 제목은 '춘향, 아빠의 애인의 이웃의 죄를 묻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춘향전>을 2020년의 시간 속으로 불러와 재해석하며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공연이었다. 이 공연이 특별한 이유는 나머지 참가자들도 공연에 참가하는 '인터랙티브 공연'이라는 데 있다. 문제를 제기한 작품을 감상한 다음, 우리가 바뀌나가야 할 지점들을 토론하며 공연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공연이 시작되자 조금 전까지 조용히 인사했던 '아무튼 유랑단'의 멤버들이 배우가 되어 실감나는 열연을 펼쳤다. 신관사또의 수청을 거

부해 춘향이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문을 전하며, 이웃들은 수군댔다. “춘향이가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잖아. 사또가 마음에 없었으면 지가 가질 말았어야지! 괜히 창창한 번사또 앞날만 망가지는 거 아니야?” 1막 '춘향이가 갇혔는데' 속 어딘지 낯설지 않은 대사들을 들으며 관객들은 야유했다.

딸 춘향이의 옷차림까지 강제하며 아내와 딸에게 폭력적인 기부장의 모습을 보여준 2막 '아빠와 경계존중', 몽룡과 방자가 그네 뛰는 춘향을 발견한 장면을 현대의 클럽으로 옮겨 재해석하며 여성의 상품화를 다룬 3막 '난 그저 봤을 뿐이고(클럽에서)', 데이트 과정에 자신의 입장만 관철시키고자 하는 몽룡을 통해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다룬 4막 'D-day(모텔 앞에서)'. 이 네 개의 장면들을 보고 난 뒤 이어진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았다. 한 때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장면들이지만 여성주의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난 지금은 더 이상 같은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 장면 하나하나에 최근의 아픈 사건들이 투영되었고, 참가자들은 우리 앞에 놓인 숙제가 많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연대하고 활동해 나갈 힘을 얻기도 했다.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쁜 마음입니다.”

충청도에서 전라도로, 그리고 세상 속으로 이어지는 이 여성들의 활동은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듯 하다.

미 니 인 터 뷰

성평등한 민주사회 발전을 위해 행동하는 여성들이 모였다!



공주책임여성행동 이은영 대표

Q. ‘공책여행’이라고 부르죠? 공책여행은 어떻게 모이게 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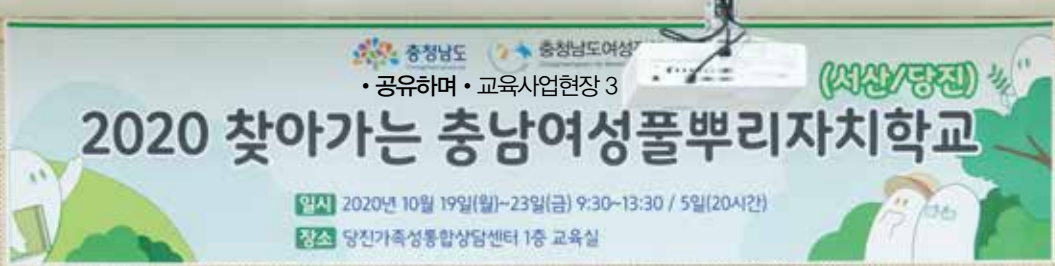
A ‘공주책임여성행동’을 줄여서 그렇게 부르는데, 여행사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요.(웃음) 저희는 거의 15년 전으로 올라가 ‘어린이책시민연대’라는 어린이책 연구 모임에서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좀 더 다양한 책을 읽고 더 많은 사회문제에 행동하는 조직을 만들고자 ‘공주책임시민행동’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후 페미니즘에 대해 공부를 하다 보니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성운동이라고 생각하게 됐고, 2018년 ‘공책여행’을 출범하게 되었죠. 그래서 회원 중에는 10년 이상 함께 한 분들도 있어요.

Q.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오셨어요?

성평등한 민주사회 발전을 위해 행동하는 여성을 지향하며, 다양한 책을 읽으며 공부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8년 미투운동이 있을 때, 지역에서 1년간 ‘미투 워드유’ 활동을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더 알고 싶은 갈증이 있어서, 2018년에는 모든 여성주의 책들을 읽고 작가들을 초대해 공부하기 바빴죠. 2019년에는 ‘2019 충남여성 풀뿌리소모임 성장 프로젝트’로 ‘페미니즘 동네책방만들기’를 진행하면서 의미있는 여성 커뮤니티 전용공간 만들기에 힘썼어요.

Q. 2020년을 돌아보신다면요?

A 올해는 ‘공주여성들의 나, 됨’을 주제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2020년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스타트업’ 사업에 참여했어요. ‘좀 나대고, 나다움을 찾자’라는 모토로 활동하고 있죠. 저희는 각자가 직업을 가지고 전문적인 일들을 하다 보니까, 상근직도 없고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또 코로나19로 어려움도 있었구요. 그럼에도 나름대로 상황에 맞춰서 부지런히 ‘나뻤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여성활동가뿐 아니라 청소년, 양육자, 시니어 등 다양한 계층과 함께 하며 여러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내년에도 지역의 여성, 소수자, 교육, 환경, 문화 등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는 성평등 실현의 ‘전화위복’

2020 찾아가는 충남여성플뿌리자치학교

코로나19로 여성 실업과 아이돌봄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성평등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이에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찾아가는 플뿌리자치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성평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변하는 시대 속에 주체적인 시민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서산·당진과 홍성·예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많은 지역사회 플뿌리여성활동가들에게 동기부여가 된 것은 물론 강연자들에게는 위기 속 성평등 정립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회가 됐다.

‘2020 찾아가는 충남여성풀뿌리자치학교’가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충남 당진 가족성통합상담센터에서,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충남 홍성 충남노동권익센터에서 각각 진행됐다. 이번 찾아가는 여성 풀뿌리자치학교는 각 지역별로 5일 동안 10회의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 실태, 한국역사와 성차별, 페미니즘의 계보, 코로나19와 젠더이슈, 사회적 모성과 정치, 젠더거버넌스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참여 대상은 젠더관점을 토대로 지방자치 참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서산·당진과 홍성·예산의 풀뿌리여성활동가들로 총 50여 명이 참가했다.



닷새 동안 10개의 강의를 수강해야 하는 빠빠한 일정임에도 수강생 모두 이탈 없이 프로그램을 수료해 여성인권과 성평등에 대한 이들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은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성평등 위기에 대비해 지역 사회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강의에 참여한 강사들은 수강생들의 열의에 찬 모습에 대해 극찬을 보내기도 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주제로 강연한 장하나 전 국회의원이자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지역사회 곳곳에서 성평등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열정적으로 강의를 청취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다”며 “정치는 특별한 집단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움직여 세상이 바뀌는 것이다. 오늘 당진 여성들이 이곳으로 향한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고 말했다.

“페미니즘의 진정한 의미, 이제야 알겠어요!”



+ 수강생 1문 1답

김경숙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

여성운동과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평소에 있어 자발적으로 지원해 참여했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사회 문제와 페미니즘의 정의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키운 것 같아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임원정 강사님의 ‘오늘의 페픽’ 강의 중 코로나19 이후 성평등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 여성의 현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저도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공부를 해서 여성활동가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경

서산시 소재 환경단체에서 활동

처음 여성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접했을 때 조금 거부 반응이 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풀뿌리자치학교 교육을 받아보니 앞으로 많은 여성들에게 주체 의식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특히 페미니즘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있었고, 세금의 흐름에 대해서도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이 여기 모인 20명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당진시 여성의 인식을 바꾸는데 기여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교육을 확장해 더 많은 지역사회 여성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의 변화는 개인의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와 1문 1답

오늘 강의 후 느낀 소감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세상을 뜰려고
치지 못해요. 결국 자신의 자리에서 목
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사람이 곳곳에서
자라나야 세상이 바뀌거든요. 당진이라
는 지역사회도 당진 시민만이 바꿀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런 지역강의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으로 활동 이후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로 일하는 이유는?

아이를 낳아서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 것은
견딜 만 했었는데 사회의 불필요한 차별은 지
켜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당사자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치하는 엄마들'
은 사회적 모성을 바탕으로 행동한다는 캐치플
레이를 내걸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당사자 정치'의 의미는?

사회용어나 정치적 용어로 정의돼 있지 않지만 우리가
운동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정치에 나서보자는 의미에
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흔히들 엘리트 집단이 정치를 해
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싶기도 했어요. 차별에 대한
문제는 차별을 직접 받아본 당사자 만이 알 수 있거든요.

+

이번 풀뿌리모임에 참여한 여성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 마디!

내가 활동했다고 또는 목소리를 냈다고 세상이 바뀔
까 싶겠지만 앞서 간 수많은 사람이 행동하면 세상이
바뀌는 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충남의 여성들도 함
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

정치하는 엄마들은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나요?

집에서 나 혼자 아이를 성평등
하게 키웠다고 페미니즘 교육
을 했다고 할 수 없어요. 어린
이집, 학교에 가면 엄마가 말했
던 세상과는 또 다르니까요. 교
과서를 엄마 혼자 어떻게 바꾸
겠어요? 뜻을 함께하는 엄마들
이 모여 목소리를 내야 사회가
조금씩 바뀌는 거죠. 마음 맞는
엄마 2명이 이상이 모이는 것
이 정치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변화되는 사회 속 강조되는 여성리더의 역할은?

충남 시·군 여성단체협의회 리더 젠더아카데미

지역의 지속 가능성, 균형 발전, 포스트 코로나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 지역 공동체를 이끄는 여성 리더의 역할도 재조명되고 있다. 이에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지난 7월 2일 세미나실에서 시·군 여성단체협의회 리더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여성주의 리더십에 대한 이해 함양을 위해 젠더아카데미를 개최했다.



도내 여성단체협의회 리더 및 회원 24명이 참여한 이번 젠더아카데미는 여성리더들의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여성단체 조직 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목표로 진행됐다. ‘여성주의 리더십에 대한 오해와 이해-여성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백희정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공동대표가 강의를 맡았으며, 사례 중심의 소규모 토론을 진행해 참가자 간 소통의 시간이 되기도 했다. 특히 이날 강의에서 백대표는 “코로나-19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환경의 전환 시점에서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공동체를 지탱하고 있는 여성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 리더들이 일상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원 수료하며 교육에 대한 높은 만족도 확인

이번 강의에서는 참가자 24명 전원이 과정을 수료해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 것은 물론, 설문 조사 결과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 리더들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여 교육내용에 반영한 결과로 풀이되며, “리더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만 다뤘다”는 평이 상당수였다. 또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던 시기였지만, 아크릴판 설치와 간격을 둔 좌석 배치, 소독제·마스크·체온계를 비치하고 발열체크를 실시해 안전하게 교육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 시대 경찰 조직의 성인지적 관점에 대하여

경찰청 양성평등 담당자 젠더아카데미

디지털 범죄가 인터넷·미디어·SNS 등을 이용해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시대지만 범죄자에 대한 낮은 처벌 수위 등 이에 대한 예방과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현실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와 법을 바꾸는 노력과 함께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 조직의 성인지적 관점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에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올해 처음으로 충남지방경찰청 전 관서의 여성 근무자 30명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직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경찰청 양성평등 담당자 젠더아카데미'를 진행했다.



6월 26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대강당에서 진행된 젠더아카데미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중심 수사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직무역량 강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강의는 젠더교육전문가그룹 청어람 황금명륜 대표가 ‘슬기로운 성평등 경찰생활- 수사과정에서의 성인지력 키우기’를 주제로 진행했다. 강의에서 황 대표는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세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직무역량 강화와 경찰조직 내 성평등 문화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슬기로운 성평등 경찰생활’ 시간에는 수사 과정에서의 성인지력 키우기를 주제로 조별 토론 시간을 가지며, 수강생들 간 수사 현장의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참여와 소통 위주의 강의로 큰 호응

경찰청 양성평등 담당자 젠더아카데미에는 충남 관할 전 관서 여성청소년과, 사이버수사팀을 포함한 수사과 여성 근무자 30명과 충남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자 1명이 참여했다. 이 중 20여 명이 교육만족도 설문 조사에 참여해 전원 5점 만점에 4.5점 이상의 평가를 했다. 개방형 의견에서는 강사 선정과 소통 위주의 강의 방식에서 상당수 만족한다고 답했고, 이 밖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가 쉬웠다는 의견과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만족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야기로



개원 21주년 기념 세미나 스토리

홈커밍데이 스케치

연구원 추천, 도서&영화

코로나19가 드러낸 여성위기를 진단하다

개원 21주년 기념 세미나 '코로나19와 젠더'

지역의 성평등 실현에 힘써 온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이 코로나19 위기에 나타난 성불평등 문제에 주목하며 개원 2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코로나19와 젠더'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신종 감염병 확산의 장기화로 여성노동, 돌봄, 젠더폭력 등에서 나타나는 위기 현황을 젠더 관점에서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2020년 6월 29일 대강당에서 개최한 개원 21주년 기념 세미나. 많은 사람을 초대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며 함께 축하했었던 예년과 달리, 코로나19 감염의 확산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조광희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성평등문화 확산의 산실인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 코로나19로 맞이한 예기치 못한 세상에서의 여성의 자리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치하의 뜻을 표했다.

첫 번째 발제는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가 ‘비정규직 노동집중화와 여성노동자들의 위기’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는 현상과 사회가 멈춰도 멈출 수 없는 돌봄노동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조명하고, 가치로서의 성평등과 돌봄 민주주의를 장착한 ‘돌봄 뉴딜’을 제안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제에서는 신성연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가 ‘코로나19와 젠더폭력, 안전’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최근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N번방 사건과 함께 대두된 사이버성폭력 문제의 뿌리를 진단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 시민사회의 재구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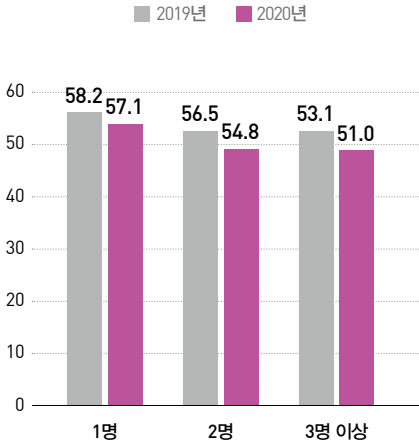


발제에 이어 지정토론 시간에는 ▲류민 충남 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팀장의 ‘비정규직 노동집중화와 여성노동자들의 위기’ ▲안수영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팀장의 ‘코로나19와 충남여성의 노동’ ▲이경옥 충남여성복지시설협의회 회장의 ‘코로나19와 젠더폭력, 안전’ ▲이옥분 대전지방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의 ‘재난 속 여성의 안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대전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A씨는 “발제와 토론에서 언급된 코로나19라는 재난 속 가중된 여성위기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여성들이 연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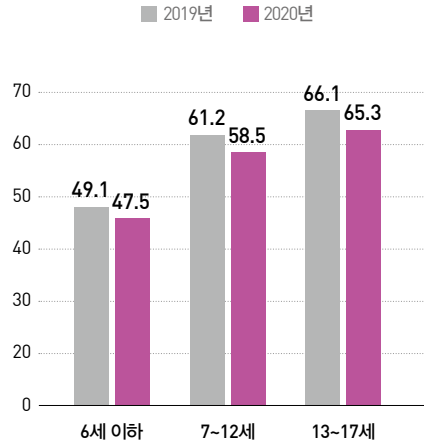
조양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원장은 세미나를 마치며 “앞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거쳐 대안을 찾겠다. 그리고 이 대안을 실질적으로 정책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20 상반기
자녀수별 여성의 고용률



2020 상반기
자녀 연령별 여성의 고용률



사회적 돌봄으로 여성노동자들 구해낼 것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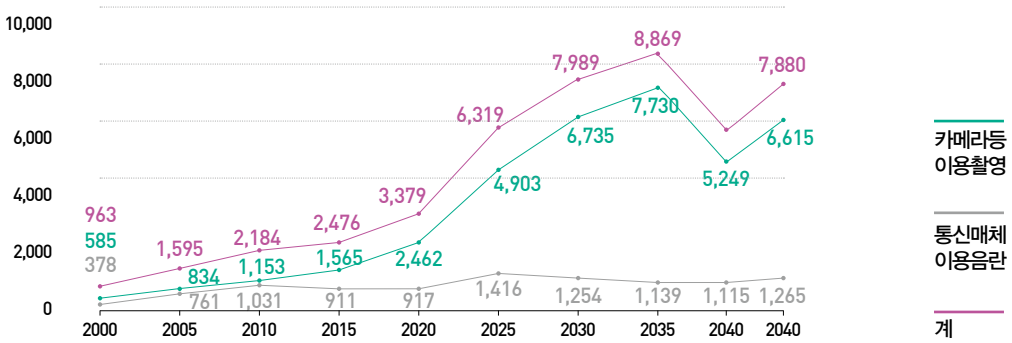
위기는 모두에게 평등하지만 그것을 받아내는 조건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성 차별이 더욱 강화됩니다. 한국 사회는 이미 20여 년 전 IMF 외환위기를 여성들의 비정규직화로 대변되는 노동시장 유연화로 헤쳐 왔습니다. 그 결과는 심각한 사회 양극화와 OECD 1위라는 성별임금격차, 강화된 성차별이었습니다. 고용동향에 따르면 여성취업자는 3월 19만5000명, 4월 29만3000명이 감소했습니다. 3월~4월 두 달간 매일 8133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입니다. 여성 임시일용 노동자는 3월에 32만 3000명, 4월에 46만 3000명 감소했습니다. 임시일용직 여성노동자들은 매일 1만 3100명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가져온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사회적 돌봄의 부재입니다. 5월 8일 이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이들 중 여성이 64%, 남성이 36%로 나타났습니다. 돌봄이 사실상 여성에게 전담되는 구조입니다. 돌봄 문제는 사회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인식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가 가야 할 방향에는 성평등과 돌봄 민주주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공간의 젠더 불평등 해소가 우선!

+ 신성연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I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현황



출처: 대검찰청 <2018 범죄분석>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사이버성폭력과 싸우기

코로나19 사태를 통과하며 새삼 발견한 것은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사회생활이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며 2019년 기준, 만 3세 이상 인구 가운데 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인터넷을 사용한 사람의 비율은 91.8%였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디지털화 된 인간관계가 더욱 보편적인 일이 된다면, 사이버성폭력과 맞서 싸우는 문제는 지금보다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온라인 시민사회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지금껏 밝혀진 것처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이 이미 10대 때부터 범죄를 시작했다는 것은 온라인 성착취 네트워크의 재생산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뤄지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이제까지 사이버성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결과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이버성폭력에 취약한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착취 네트워크의 재생산 속도를 뛰어넘는 빠르기로 온라인 공간의 젠더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온라인 시민사회의 재구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를 전화위복 삼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재난으로 무너진 사회 기반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 허심탄회 지정토론에는 어떤 말들이? |

“지역 여성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상황 인정하고 대안 설계 필요”



류민 충남노동인권센터 정책기획팀장

사회적 재난 시기에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노동인 지역 여성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과 저임금, 감염 위험 등에 집중적으로 노출돼 있습니다. 우리는 재난시기에 또렷이 드러난 지역 여성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노동의 문제들을 바로 마주하고 대안을 설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불안, 위험이 가중된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은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여성의 취약한 노동 환경 개선이 시급”



안수영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팀장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과제 세 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의 업무 환경에서 드러난 충남의 취약한 방역시스템, 두 번째는 새 일자리를 갖거나 변하는 시장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 준비, 마지막으로 여성들이 코로나19로 대량 임시휴직 또는 휴업, 실업자가 된 상황에서, 이직 및 전직 등의 고용서비스를 어떻게 구성할 지입니다. 충남도의 대응이 궁금합니다.

“코로나19로 업무 처리 과정에도 번거로움 많아”



이경옥 충남여성복지시설협의회 상임대표

저희 업무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젠더폭력을 예방하는 현장에서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애로가 있었습니다. 방역 지침에 맞춰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분리된 공간에서 일일이 검사를 한 뒤 입소를 해야 했습니다. 불안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받아들이며 애써주시는 종사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립된 환경일수록 관심이 더 필요합니다”



이옥분 대전지방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이나 집에 고립돼 있었을 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지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서비스로부터 멀어지고, 학대나 폭력에 대한 감시 체계에서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메시지나 캠페인을 통해 폭력이나 학대 속에 고립된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문제에 대한 답을 찾다 주거니 받거니 Q&A

Q

이경옥 |

충남여성복지시설협의회 상임대표

사이버성폭력의 경우, 익명성이 높은 관계로 가해자의 증거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이버성폭력을 경험한 여성 네티즌 중에서 사회적, 법률적 대응을 한 비율은 19.6%밖에 없다고 합니다. 불법촬영물의 근절과 수요 차단을 위해서는 신고를 안 해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신성연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불법촬영물 근절과 수요차단에 의해서 신고하지 않아도 파악하고 조치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이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필터링을 의무화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벌금을 내고 책임을 묻는 내용으로 개정됐습니다. 이 내용이 이미 웹하드에는 적용되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죠. 이번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한테 까지 확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라 함은 인터넷 회선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 굉장히 많은 사업자들이 이 법안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리고 정부가 이 사업자들의 반발에도 얼마나 단호하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테고 성폭력운동의 압박은 계속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Q

김주영 |

충남 천안시

오늘 젠더폭력에 대한 부분에서 연관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여쭙보는데요, 박혜련 의원이 비동의 간음죄를 이번에 발의했습니다. 지난번에 미투 관련해서 발의했을 때와 조금 변경된 내용으로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겠다고 발의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김영주 |

여성정책개발원 수석연구위원

강간에 대한 기존 형법 판결의 기준은 피해자가 저항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엔의 많은 국제기구나 여성단체들이 동의 했는가 안 했는가를 두고 강간죄를 다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움직임 속에서 최근에 실제로 법을 바꾸거나 법 적용을 하는 나라가 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차원에서 여성단체, 젠더폭력운동 관련 단체들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내용입니다. 그동안의 사법적 판단이 여성피해자의 관점이 아니라 가해자 중심, 남성중심적이지 않았나라는 문제도 제기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강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따지는 부분도 좀 더 전향적으로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평등에 대한 이해 UP! 역량 UP

충남여성의 성장 플랫폼, 홈커밍데이로 OH! SHU!



지난 12월 10일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한 해 농사를 마무리 짓는 홈커밍데이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해였지만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을 지원하며 숨 가쁜 시간을 보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진행한 'Up-시리즈' 공모사업은 충남여성들이 지역의 성평등을 위해 직접 활동함으로써 젠더 전문가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을 듣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성평등 모니터링 Move-Up', '작은연구 Study-Up' 등 Up-시리즈 공모사업뿐 아니라 1년동안 개발원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모두 모여 지난 성과를 발표하고 서로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홈커밍데이의 개발원의 교육과 사업을 통해 성장한 지역 여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 해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연례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으로 최소 인원만 현장에 참석하고 약 200여명이 웨비나 온라인 접속을 통해 참여했다.

이날 홈커밍데이 행사는 퓨전 굿마당 '마즐'의 축하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마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먼지 차별'을 풍자적으로 표현해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개발원 사업에 기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개발원 사업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대단한 발 '상'과 오랜 시간 개발원과 함께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남이나나 더이 '상',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협력사업 공모전의 당선작 발표가 이어졌다.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이정민 학생은 "교내에 배포할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법안 소개 콘텐츠를 출품해 수상하게 됐다"며 "지역의 남녀공학 학교에서 페미니스트 운동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려운 상황이라 더 결집하게 되는 것 같다.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더 발전해 갈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이나나 더이 '상'을 수상한 이상미 씨도 "10년 동안 여성정책개발원의 다양한 활동과 사업에 참여해 왔다"며 "지역에서 여성활동가로 혼자 활동하는데 제약이 많지만 같은 생각을 가

진 사람들이 함께 하면 동력이 생긴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다음 Up-시리즈 공모사업 사례발표 시간에는 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에 선정된 난장팻의 전하연 대표와 성평등 모니터링 Move-Up 사업에 선정된 이선화 대표의 발표가 이어졌다. Up-시리즈 공모사업은 지난 4월부터 총 세 분야에 걸쳐 진행됐다. 그 첫 번째 사업인 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은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충남지역 여성 소모임을 지원한다. 성평등 모니터링 Move-Up은 성평등 관점으로 시·군의 정책과 사업을 조사하고 개선점을 찾는 활동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작은 연구 Study-Up은 '여성이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지역 밀착형 작은 연구를 지원한다. Up-시리즈 사업은 '성평등에 대한 관심과 이해 Up', '성평등 활동 역량 Up', 나아가 충남의 성평등 정책을 견인할 수 있는 '젠더전문가로서의 성장 Up'을 목표로 기획됐다.

행사의 마지막 코너인 '톡(터놓고)! 톡!'에서는 '공책여행(공주)' 이은영 대표와 '충남성평등 강사단' 임난희 강사를 비롯한 풀뿌리자치학교 유혜선 씨, 스티디업 작은연구의 이유진 씨, 충남 성평등 모니터링 Move-Up에 참여했던 유미경 씨가 패널로 참석해 각자의 노력과 고민을 공유했다.

이날 양승조 충청도지사는 "충남여성들의 활동에 감사하고 응원한다. 앞으로도 성평등한 충남을 위해 앞장서 달라. 충남도 또한 여성정책개발원을 비롯한 여러 여성 단체들과 함께 여성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축하의 메시지를 영상을 통해 전했다.

각양각색 사례 공유의 시간

지역 여성들의 억압된 마음을 푸는 공간, 난장팻

전하연 | 난장팻 대표



모임 취지

문화와 예술을 좋아하는 농촌 지역 여성들이 모여 페미니스트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며, 난장팻을 벌이자는 취지로 모임이 탄생했다.

활동 일지

① 페미니즘 관점으로 본 '여성 그림책 만들기'

모임 1년 차에는 그림책 강사를 초빙해 지역 여성 청년들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여성과 페미니즘의 관점으로 작품을 만들며 예술적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② 지역 페미니즘 잡지 <월담> 발간

2년 차에는 지역 내 페미니즘 이슈를 다룬 잡지 <월담>을 발행했다. 지역 여성들이 페미니즘을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잡지라는 콘텐츠 통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했다.

③ 문화 예술 페미니즘 교육과 워크숍 진행

3년 차에는 문화와 예술을 기반으로 지역 여성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했지만, 페미니즘에 대해 몰랐던 지역 여성들이 여성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충남 성평등 모니터링 Move-Up

이선화 | 충남성평등
모니터링단 아산시 활동



사업 취지

각 시·군의 정책과 사업을 성평등 관점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활동을 한다. 올해는 8개 시군에서 24명의 모니터링단을 구성했다. 모니터링 기획단은 시·군 대표 8명, 개발원에서 2명, 외부 컨설팅 2명으로 구성됐다.

모니터링 결과 보고

성평등 조례 제정 시 젠더 관점의 사업기획이 필요하다. 성평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젠더 전문가의 조언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성인지 관련 조례의 목적과 사업 운영이 잘 맞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모니터링단 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워크숍과 교육도 마련해 줬으면 한다. 그밖에 사업을 시행할 때는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와 포상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사업 관련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했다. 여성과 다문화 가족 관련 기관 사업에서는 사업의 연계성과 총괄 주무부서의 통일성이 요구됐다.

‘푹(터놓고)! 푹!’ 에서 주고받은 대화는?

유미경 | 충남 성평등 모니터링 Move-Up

“여성단체협의회를 대상으로 처음 모니터링을 진행할 때 ‘보이지 않은 경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협의회 담당자들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다 보니 예상보다 열린 마인드를 가져다 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들도 지역 여성활동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고요. 이를 통해 서로의 편견을 깰 수 있었습니다.”



이유진 | 작은 연구 Study-Up



“작년의 통계를 바탕으로 충남 청소년들의 성평등 의식을 분석하고 작성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청소년들의 진짜 목소리를 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심층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정을 잡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연구 분석 후 느꼈던 점이 많았습니다. 일부 청소년들 중에는 성교육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답변과 성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답변도 많았습니다.”

임난희 | 충남성평등강사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보면 40분에서 50분 동안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할 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특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달식 강의를 한다는 것은 많이 힘든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많이 느껴 이를 위해 강사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혜선 | 풀뿌리자치학교



“영화 ‘82년생 김지영’에 나오는 ‘세상은 많이 변했다. 하지만 그 안에 소소한 관습이나 규칙은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대사가 생각납니다. 소소한 규칙은 변하려 하지 않는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정책이 변하지 않으면 후세의 세상도 바뀔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바뀔 수 있도록 한 발 더 나아가 활동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해야 할 사회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영 | 인큐베이팅 Start-Up 공책여행

“여성인재를 발굴하는 중요한 사업이 바로 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사업입니다. 이 넓은 충남에서 여섯 개 소모임을 지원하는 것은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 지역 15개 시군에 2개 이상만 지원해도 30개 소모임입니다. 충남의 여성들이 여성정책개발원이라는 플랫폼을 거쳐 연대한다면 충남의 성평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01 생각 버리기 연습

코이케 류노스케 저 / 유윤한 역 / 21세기북스
추천인 | 안수영 연구위원

이 책은 우리를 끝없이 괴롭히는 잡념의 정체, 즉 생각이라는 병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스스로를 상처내고 괴롭히는 수많은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일독을 권한다. 멈춰 서서 고요히, 담담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짧은 단락들로 구성되어 있어 소파에 누워서도 편안하게 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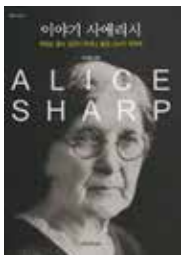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들의 PICK! 2020 IT BOOK!

03 이야기 사애리시

임연철 저/신앙과 지성사
추천인 | 김종철 수석연구위원

사애리시는 천안 지령리 교회(현 매봉교회)에서 어린 유관순을 만나 그의 영민함을 눈여겨보았다. 이후 복음과 교육을 위해 공주에 영명여학교(후에 영명학교로 개칭)를 세웠고 유관순은 이곳에서 2년을 수학하고 이화학당에 입학했다. 이 책은 대한민국에 지성과 복음을 정착시키기 위한 사애리시의 노력을 담고 있으며 충청여성사에 보배로운 사료이기도 하다.



04 긴즈버그의 말: 평등을 향해 걸어온 대법관의 목소리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헬레나 헌트 저/오현아 옮김/마음산책
추천인 | 태희원 연구위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역사 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여성과 소수자를 억압하는 모든 권력에 맞서 싸워왔다. 이 책은 그녀가 변호인 시절 맡았던 주요사건과 발언 등을 담고 있다.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마라.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는 외로운 목소리가 되지 않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라!" 역시 가슴을 울리는 멋진 말이다.



05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 배우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지음/중앙북스
추천인 | 안세아 연구위원

라다크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해주는 상호연계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비효율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확인할 수 있다.

'오래된 미래'는 라다크의 삶의 만족감과 행복도 GNH(Gross National Happiness)를 이야기함으로써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 삶과 실천이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02 영화 <서프러제트>(2016)

추천인 | 조윤진 연구위원

참정권, 동등한 인간으로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여성들의 투쟁을 가장 잘 그린 영화다. "여성은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의정단상에 오를 권리도 있어야 한다"고 외치며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올랭프 드 구즈와 그와 함께 싸운 수많은 여성들의 눈부시고 당당한 투쟁이 기억에 남는다.



메타인지 학습법

생각하는 부모가 생각하는 아이를 만든다

06

리사 손 저/ 21세기북스

추천인 | 송미영 선임연구위원

저자는 메타인지에 대해 현재 나의 인지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능력이라 정의하고 있다. 메타인지를 키우려면 자기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저자는 메타인지는 평생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평소에 문제해결법을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07 박막례,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박막례 · 김유라 저/위즈덤하우스

추천인 | 허현진 연구원

‘박막례, 이대로 죽을 순 없다’는 독보적 유튜버

박막례와 천재 PD 손녀 김유라의 말도 안 되게

뒤집힌 신나는 사건들을 유쾌하게 담아내고 있다. 두렵더라도 재미있는 일을 시도하고, 실패해도 시원하게 웃고 마는 박막례. “고난이 올라봐 찢찢매는 것이 제일 바보 같은 거여. 어떤 길로 가든 고난은 오는 것이니깐 그냥 가던 길 열심히 걸어가”



08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창비 추천인 | 맹준호 연구위원

우리는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누구도, 무엇도 차별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차별을 자행하고 있다. 이 책에

서는 이러한 우리를 가리켜 선량한 차별주의자라고 말한다. 다양한 예를 통해 사회에 만연한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보자!



09 영화

<안토니아스 라인>(1997)

추천인 | 이경하 연구원

안토니아스 라인(안토니아-다니엘-테레사-사라로 이어지는 4대에 걸친 모계 공동체의 삶, 성과 사랑, 폭력에 대한 저항 등을 한 편의 서사시 형식으로 그려내고 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벗어난 다양한 여성의 삶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는 점, 다양한 개인의 삶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에 대해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점에서 강력 추천한다.



10 시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김승희 저, 김정선 그림/마음산책

추천인 | 이채민 연구위원

‘그래도’라는 섬에서

그래도 부둥켜안고

그래도 손만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 강을 다 건너

빛의 뗏목에 올라서리라,

어디엔가 걱정 근심 대 내려놓은 평화로운

그래도, 거기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11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조지 레이코프 저/유나영 옮김/와이즈베리

추천인 | 우복남 선임연구위원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인지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의 저서이다. 저자는 책에서 대중의 사고를 지배하는 ‘틀 짓기’를 강조하며, 틀은 ‘인지적 무의식’을 뜻하고 이로부터 ‘상식’이라는 자연스러운 추론이 나온다고 한다. 정치뿐 아니라 성평등, 인종평등, 공교육 등 사회이슈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추천한다.





소통하다



SNS 홍보기자단의 취재 현장

충남여성 뉴스룸

성평등 충남을 만드는 사람들

2020 SNS 홍보기자단의 활약은?

코로나19로 이동이 쉽지 않았던 한 해였지만 SNS홍보기자단은 충남 지역 곳곳의 성평등 의식 확산 소식을 꾸준히 전해왔다. 소외 이웃돕기, 각종 양성평등을 위한 세미나와 캠페인 등 올 한해 충남여성 정책개발의 페이스북을 달궜던 취재 현장을 담아봤다.

이미정 | 아산시 홍보기자

#다빛여성공동체 #이웃사랑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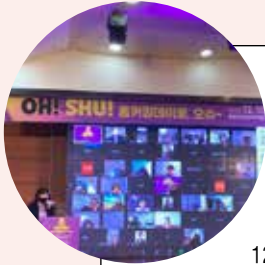
온양원도심 여성친화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다빛여성공동체(언니네반찬)는 12월 24일 동지를 맞아 팔죽 판매를 한 수익금으로 복지시설과 온양 원도심 내 조손가정에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코로나19로 유난히도 힘들었던 올 한해, 다빛여성공동체의 나눔이 조금이라도 힘이되고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유미경 | (전)홍보기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20홍커밍데이**

12월 10일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올 한 해 동안 15개시·군 활동가들이 참여했던 사업들에 대해 논의하고 활동경험들을 나누는 홍커밍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풀뿌리 자치학교, 충남여성소모임인큐베이팅, 성평등전문강사단, 성평등모니터링단, 작은연구 등 사업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이 사례 발표와 토크쇼를 통해 진행 과정 중 느꼈던 점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었다. 이날 공연했던 '마줄' 팀의 대사 중 "힘든 아들에게 공감과 연대의 말을 나누며 힘을 주는 평등세상 열어보자"는 말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인 오늘 참 의미있는 행사였다.



김은선 | 대전광역시 홍보기자

**#대덕호연지기네트워크
#워크숍**

11월 23일 대전 대덕에너지 카페에서 '여성 마을에서 경제를 만나다'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대덕호연지기네트워크는 1년 동안 여성일 자리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왔다. 심층 인터뷰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대덕형 마을 여성 일자리에 대한 설문 결과를 공유하고 대덕구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개인의 문제가 일상의 문제이며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인지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



전말숙 | 보령시 홍보기자



#여성의정아카데미

여성의정아카데미 충남기본과정 입학식이 11월 21일 진행됐다. 12월 12일 까지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한국의정에서 주최하고 여성의정 대전아카데미가 주관했으며 여성정치인 발굴과 역량강화를 위해 만들었으며 충남의 15개 시·군의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김은선 | 대전광역시 홍보기자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북콘서트

지난 11월 17일 대전에서 여성을 위한 의미 있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가 1년 동안의 성과물을 엮어 <여성경력이음 세상을 위한 우리들의 이야기> 책을 제작하고 북콘서트를 열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이 아닌 '경력 이음'이 보편화되는 사회를 바라며, 대전 여성의 다양한 삶을 기록한 책으로 지역 여성들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이미정 | 아산시 홍보기자

#배방읍 #동네한바퀴 #모니터링

아산시 여성친화서포터즈단이 11월 11일 월례회 및 배방읍 동네한바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배방읍사무소 주변을 돌아보며 여성안심구역과 로고젝터 모니터링 등 시민들 안전 상황을 확인했다. 아산시 여성친화서포터즈단은 양성평등한 아산,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아산을 위해 모니터링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전말숙 | 보령시 홍보기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SNS홍보기자단 #워크숍**

충남여성정책개발원 SNS 홍보기자단 워크숍이 11월 9일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조양순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위촉식과 수여식이 진행됐다. 이후 SNS 기사 작성을 위한 성인지적 관점의 이해와 여성친화도시 사례 활용을 중심으로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김형욱 | 부여군 홍보기자

#부여 #여성리더 #역량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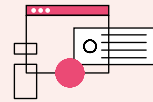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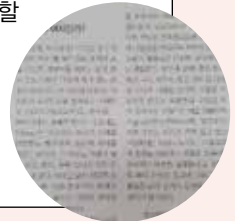
일상의 삶에서 여성친화도시정책 확산 및 시민주도적인 여성정책 결정 참여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이 시작되었다. 성인지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부여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은 8월 10일에서 9월 4일 동안 부여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양성평등에 대해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서로의 방역을 신경 써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구분중 | 부여군 홍보기자

#성차별방지법

나의 길지 않은 직장생활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낀 부분은 여성의 임금 이 남성의 절반에 그치고, 승진의 기회도 거의 없다는 점이었다. 성의 정체성은 곧 차별로 나타나는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출산과 육아에서 여성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이러한 사회 구조적 모순이 '출산을 세계 최저'라는 국가의 최대 위기로 귀결되니 성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한다.



윤예주 | 청양군 홍보기자

#돌봄노동

모든 사람이 살아가며 돌봄이 필요한 순간에 처한다. 돌봄노동은 가족 구성원이 맡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맡길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의 돌봄 노동이든 여성이 전담한다는 것이다. 돌봄 노동은 오로지 여성의 몫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이며 평등한 관계 속에서 온전히 노동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과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최미자 | 보령시 홍보기자

#충남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이주여성활동가

충남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는 6월 22일부터 29일까지 지역에서 통번역사와 상호 문화의 이해를 돕는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활동가 교육을 총 6회에 걸쳐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다양한 국적의 이주여성 17명이 참여했으며 소통에 대한 의식과 우리 지역의 이야기, 오랜 경력을 가진 활동가의 생생한 경험담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감수성 및 활동을 증진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을 이수한 활동가들은 통번역과 문화이해교육, 체험활동 등 충남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정 | 아산시 홍보기자

#세월호기억전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4월 16일 오후 아산 온양온천역 앞에서 '세월호 기억전'이라는 사진 전시회가 열렸다. 윤영숙 세월호 아산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최대한 행사를 자제해 사진전만 진행하며,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매년 추모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한 추모 묵념에도 꼭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형욱 | 부여군 홍보기자

#소비자교실중앙회 #착한소비운동

소비자교실중앙회 부여군지회는 4월 9일 자치단체와 지역을 살리기 위한 착한소비운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착한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활동과 농산물 직거래 장터, 착한 소비 릴레이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충남 여성 뉴스룸

2020년에도 양성평등을 위한 젠더아카데미와 각종 세미나, 워크숍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를 꾸준히 받아왔다. 지난 한 해 언론을 통해 비춰진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NEWS

경찰청 양성평등담당자 젠더아카데미 개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26일 대강당에서 충남지역 전 관서의 여성근무자 30명을 대상으로 '경찰청 양성평등담당자 젠더아카데미'를 개최했다.

당진신문 6월 26일자



[당진신문]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26일 대강당에서 충남지역 전 관서의 여성근무자 30명을 대상으로 경찰청 양성평등담당자 젠더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여성태성범죄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중심 수사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선인자적 관점에서의 직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경찰청과 협의의 통해 추진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개원기념 세미나 여성노동·돌봄·젠더폭력 등 진단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제, 사회적 위기에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강일보 6월 30일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세미나... 여성노동·돌봄·젠더폭력 등 진단



지난 4월 27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대강당에서 '코로나19와 젠더'를 주제로 열린 1주년 기념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제공

[금강일보 최선웅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제, 사회적 위기에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여성노동 및 돌봄 노동, 젠더폭력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 정부차원의 정책 도입에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수영 선임연구위원 “아르바이트 일자리 감소 신규채용 급격히 위축”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안수영 선임연구위원은 7일 도내 만18~29세 청년과 아르바이트 고용사업주 대상 노동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쿠키뉴스 9월 7일자



충남 1인가구, 다인가구보다 삶의 만족도 낮아

충남의 1인가구는 다인가구보다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낮고 우울감은 높으며 여가 및 문화활동 참여율도 다인가구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도일보 9월 16일자



‘디지털 성범죄 예방’ 컨텐츠 공모

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조양순)은 10월 5일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컨텐츠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청신문 10월 5일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저출산고령화정책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저출산고령화정책위원회와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과 양성평등 활동 협력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충남신문
10월 23일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남도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제시

충남도 인권영향평가에 공무원들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충남도에 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에 도가 적극 반영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충청투데이
12월 8일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홈커밍데이 개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이 2020년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통해 발굴·성장한 충남의 여성인재들을 비롯한 개발원과 소통하며 지지해준 도민들과 함께 환대·연대를 위한 '홈커밍데이 행사'를 1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일보 12월 10일자



홈커밍데이 행사, 사진제공-충청일보

[충남=환경일보] 김현정 기자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원장 조영숙)이 2020년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통해 발굴·성장한 충남의 여성인재들을 비롯한 개발원과 소통하며 지지해준 도민들과 함께 환대·연대를 위한 '홈커밍데이 행사'를 1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객상으로 인해 대면행사 개최를 대폭 축소하며, 최소 인원 참석과 신청자들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동시에 참여한 가운데 행사진행 대형 스크린으로 연결된

충남도여성정책개발원 연탄나눔 봉사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지난 12월 22일 공주에 거주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따뜻한 온도, 연탄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금강일보 12월 23일자



NEWS

성평등 충남을 만드는 사람들

I 기획조정실

이름	직위	전공	업무
송미영	선임연구위원(실장)	사회복지학	연구, 교육, 행정팀 업무총괄
이경하	연구원	사회학	대외협력, 홍보사업
김기석	행정원		경영평가 관련업무, 사업실적 관리
호지영	연구조교		업무지원

I 연구팀

이름	직위	전공	업무
안수영	선임연구위원(팀장)	노동사회학	일자리연구, 여성인적자원개발
김종철	수석연구위원	교육공학	여성친화도시
김영주	수석연구위원	문화사회학	인권
우복남	선임연구위원	언어문화학	다문화
임우연	선임연구위원	가족사회학	가족정책, 여성친화도시
태희원	연구원	여성학	젠더연구
맹준호	연구원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정책
안세아	연구원	행정학	여성복지정책
김미란	연구조교		연구지원

I 교육·사업팀

이름	직위	전공	업무
조윤진	연구위원(팀장)	사회복지학	업무총괄, 사업기획 및 운영
이채민	연구원	사회학	교육·연구조성사업
허현진	연구원	사회복지학	교육·연구조성사업
허선영	연구조교		교육사업지원

I 성별영향 평가센터

이름	직위	전공	업무
태희원	연구위원(센터장)	여성학	성별영향평가센터 총괄
안세아	연구원	행정학	성별영향평가 및 연구·컨설팅
이정윤	전담연구원	사회학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관리

I 행정팀

이름	직위	업무
김기석	팀장 직무대리	경영평가, 행정팀 업무 총괄
김매화	행정원	일반회계 예산 결산
나영주	행정원	노무 담당
박선미	행정원	위·수탁 계약, 복지제도, 직원교육
최영락	기술행정원	환경정비, 차량관리
이원우	기술행정원	시설관리
황선덕	행정원	행정지원
김영숙	청소직	원내외 시설 환경 미화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지역 곳곳에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면서
여성 인권이 다시 뒷걸음질 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성평등한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여성들과 연대해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충남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